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2월 18일(음력 1월 24일) 수요일(주간)

신도증, 혜택이 펑펑~

조계종, 사찰무료입장 등 108가지 6월부터

조계종 신도증 하나면 전국 사찰에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108가지 혜택으로 무장한 신도증은 휴대전화와 함께 외출 시 휴대할 필수카드가 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신행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종단 신규 신도증을 4월부터 제작 · 발급한다. 전자인식칩을 내장해 신도증 소지자에게 생활에서 항상 쓰이는 필수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감성 시대에 맞춰 호신불 삽화로 디자인 된 이번 전자 신도증은 108개의 할인혜택이 이르면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신도증 108 혜택'으로는 △문화재사찰과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무료 · 할인입장 △동국대 의료원 할인 △템플스테이 마일리지 및 할인 △종단 제휴 여행사 및 업체, 생활 체인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시 할인 등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 · 장례와 같은 경조사에 목적사업을 추진해 불교 신도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게 된다.

포교원 황철기 신도팀장은 "신도증은 그동안 미비한 혜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교부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신도들에게 권리를 찾아 조계종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신규 신도증 발급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들은 4월부터 재적사찰에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2009년 1월 중 가입한 신도는 재적지로 자동 재송부된다. 2~3월 신규가입한 신도는 4월 신규 발급개시 시점에 맞춰 전자신도증을 받는다.

포교원 신도팀은 "현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 및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며 "2월 말경 기업 제휴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 협약 진행에 따라 전자신도증이 선보일 4월부터 108할인 혜택 중 일부가 1차로 제공된다.

하지만 새 신도증 발급 전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워낙 납부율이 저조해 교무금이 밀린 신도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1996년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이 교리교육 체계화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신도 재적사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 · 발급한 신도증은 발급 첫 해 10만명, 2000년까지 200만명 등록을 목표로 내세웠다. 13년이 지난 현재 신도등록자 수는 목표치 1/5인 40만여 명에 불과하다. 매년 1만원씩 납부하는 신도교무금 납부율이 10%도 못되는 것도 밀린 교무금에 대한 종단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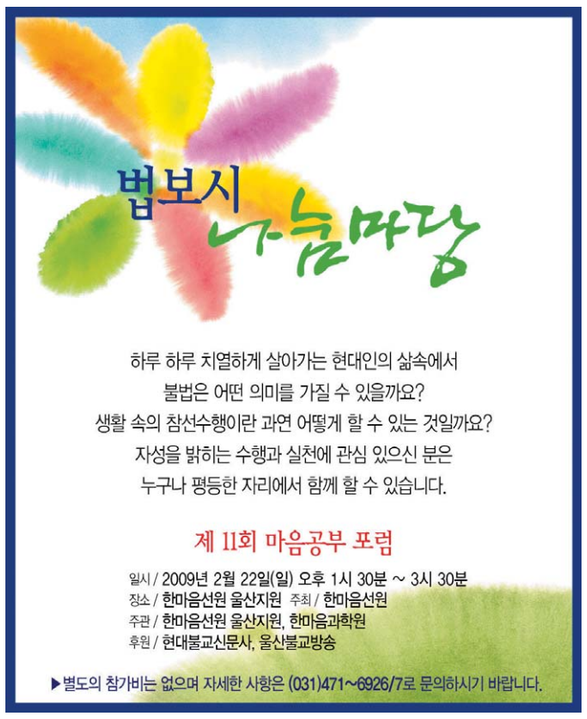
때문에 이번 신도증 갱신계획에는 무엇보다 체납된 교무금을 조정해주는 종단적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혜택만 늘려서는 체리피커(cherry picker:기업의 허점을 이용해 실속만 챙기는 현상)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 신도증 혜택의 본래 목적인 신행활동 장려 및 신도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안 등 종합적인 포교정책을 정비함은 물론 교부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종단차원의 재정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새 신도증 발급 계획은 조계종 신도들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고취시켜 미래 한국불교의 위상을 가늠케하는 대작불사다. 새 신도증이 무늬만 바뀌는데 그칠지, 소지하는 신도들의 신심과 자긍심까지도 업그레이드 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인류를 자연으로 돌려야지" ▶14 지허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세상나아질때까지 불사 중지" ▶8 법정 스님 길상사 해제법문
▶19 '원담 대종사 추모 1주기 맞아 선필 전시회'
▶23 함께가요 강의실 이현정

"전통사찰 보존 ▶ 보존·지원으로"

국회, 2월 12일 전통사찰보존지원법 개정안 통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으로 전통사찰 불사와 불교컨텐츠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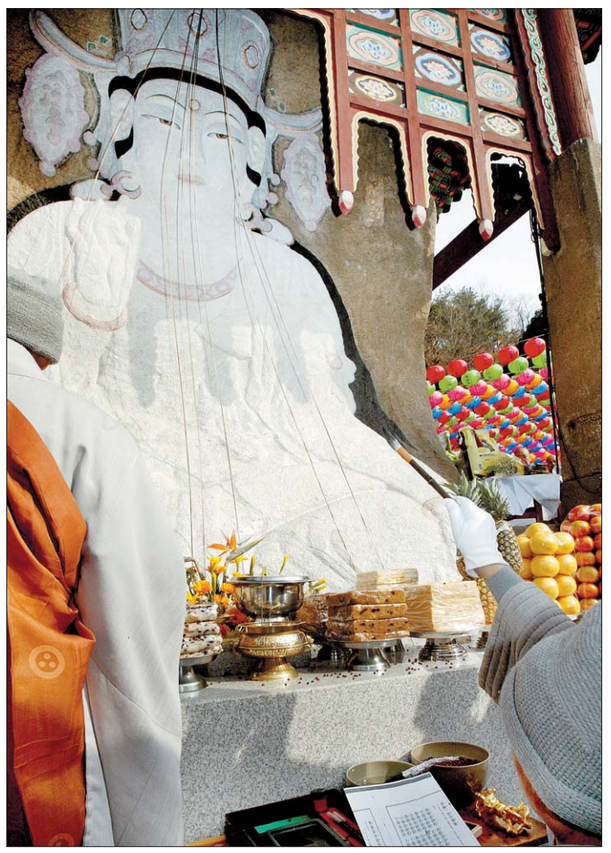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사찰 보존에서 보존과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통한 증축 허용 △불교전통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문광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3일 기획실장 장적 스님이 논평에서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님은 전통사찰문화연구원 관련 조항에 있어 최종 법안개정 과정에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점은 아쉬워했다. 한편 12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돼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동섭 기자



돌아온 순백(純白) 미소 '백불(白佛)'로 불리는 서울 옥천암의 '보도각 마애보살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3년여의 개채(改彩)불사를 마치고 백불의 제 모습을 찾았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2월 12일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을 증명으로, 원명 스님(조계종 어장)을 법주로 모시고 '보도각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박재완 기자

1拜 100원, 1燈 1000원 이웃에 보시

조계종 교구본사, '자비나눔 실천운동' 결의

불교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비나눔 실천운동을 펼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지관)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9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자비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자비나눔 실천운동은 "가난한 이웃 중생들에게 보시행을 생활화하자"는 법전 종정 스님의 신년교시(1월 9일 발표)에 따라 계획됐다.

회의 후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우리 사회는 10년 전 IMF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내몰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범불교적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구본사가 △1등 1000원 보시 희망의 등 달기 운동 △1배 100원 모금 108배 기도 봉행 △한끼 나누기를 통한 저소득 · 실직가정 돕기 △청년실직자 등을 위한 희망행복 템플스테이 실시 △종무원 인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이사장 선출 무산

동국대 이사장 선출이 무산됐다.

동국대 이사회(직무대행 영담)는 2월 13일 제24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사장 선출과 예산승인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사장 선출 문제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간담회로 대체됐다.

간담회에서 이사들은 2시간 가량 이사장 선출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음 이사회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동섭 기자

법구경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존엄사와 불교교리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최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6 · 여)씨와 가족들이 "김씨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여 년간 허용 여부 및 개념 정의 논쟁만 지속됐던 안락사 문제에 다시 한번 '찬성' 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담당한 이인복 부장판사가 "사형 선고보다 생명과 더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인 탓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존엄사 허용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되기 충분하다.

논란이 일자 가톨릭측은 즉각 존엄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교리적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박정우 사무국장은 "기독교적 생명과 관련된 가치를 연구 · 토론하는 교황청 산하 생명학술원과 신앙교리성 등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교계의 경우 존엄사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강호순도 사형집행만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존엄사에 대해서는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 등 몇몇 단체와 스님들이 각각 "인권적 측면에서 반대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다. 2004년~2006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 '불교와 생명윤리'에 대한 토론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해 보고서를 발간 했지만, 불교계 대표 의견으로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는 불교계가 사회 문제를 교리적 측면에서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공식 기구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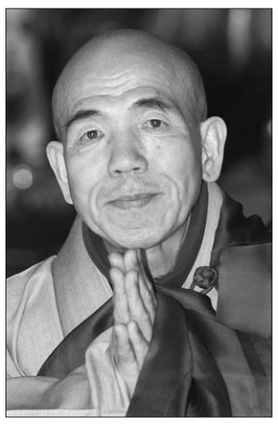
불교계 각 종단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 등을 제도 · 학문 · 사상적으로 조명하고, 불교교리를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불교계에 요구하고 있는 당연한 목소리다.

늦었지만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에서 설한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세간 · 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해야한다"는 법문을 유념해야 할 때다.

"法없는 사람이 어찌…"

적명 스님 봉암사 조실 고사… '하심' 귀감

조계종 내에서 젊은 스님이 노스님을 폭행하는가 하면, 상좌가 은사를 고소 · 고발하고, 폭행도 서슴치 않는 사건은 승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동국대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된 前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이나 서울불교대학원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이 이사직까지 잃었던 것도 한 예다. 조계종도 2008년부터 시작한 결계(結界)와 포살(布薩)은 문란해진 승가기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 수좌(首座) 적명 스님(은해사 기기암 · 사진)이 수좌계의 존경받는 어른이면서도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사실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문경 봉암사(주지 함현)에서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한 문경시와의 MOU 체결이 있던 2월 10일, 대웅전에서는 동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 함현 스님은 적명 스님을 수좌라 소개했다. 이에 적명 스님은 "처음 봉암사에 왔을 때만 해도 가난한 절의 대명사였다. 여러 주지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외형적인 불사를 마무리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열심히 정진하는 것뿐이니, 정진제일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함현 스님은 적명 스님을 삼고초려 끝에 수좌로나마 모신 사연을 소개했다. "조실이나 방장으로 모셔도 손색없는 분이나 적명 스님이 극구 고사했다"는 것. 당시 적명 스님은 "법이 없는 사람이 어찌 조실을 하겠느냐"며 수좌로만 남겠다고 사양했다는 후문이다.

대표적 선승인 적명 스님은 출가한지 50여 년이 넘은 구참 수좌다. 스님은 전국선원수좌회에서 고우 스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지냈을 뿐, 단 한번도 주지소임을 맡은 적이 없다. 최근까지도 스님은 은해사 기기암에서 주석하며 여름, 겨울 안거마다 결제는 물론 해제 때도 젊은 수좌들과 함께 선방에서 꼿꼿이 산철 결제를 이어온 '본분납자'다. 50여 년 공부에도 스님이 "공부가 덜 끝났다"며 법문도, 인터뷰도 않는 까닭에 스님을 아는 불자들이 드물 정도다.

불교는 '무아(無我)'를 강조했다. 승려기강에 관한 문제는 하심하지 않고 아상(我相)을 앞세운 결과로, 결국은 수행을 하지 않는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적명 스님의 겸양이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조계종 원로스님들 멸빈자 구제 나서

밀운 스님, 총무원에 청원서 제출



출가자에게 '멸빈'은 세속의 사형에 비교되는 중징계다. 승려 신분에 관계된 일체를 회수할 뿐 아니라 멸빈조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인권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최근에는 사형제를 대신할 감형 없는 종신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에 자비문중이라 일컫는 조계종에는 1954년 조태분규 이후 종단 내 이해관계 등에 얽힌 540여 출가자가 멸빈 처분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 종단사태와 관련한 정우 · 원학 스님 등 극소수 멸빈자만이 복권됐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 사진)을 비롯한 조계종 원로 대종사 24인이 "억울한 멸빈 · 제적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밀운 스님은 2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멸빈자 복권 등을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종단 분규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져 감정적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다"며 "멸빈 당하면서도 변론 한번 못한 분들을 종단 차원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석한 혜승 스님(조계종 원로의원)도 "해종 행위자로 멸빈당한 사람이 많은데 해종 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정치적으로 희생된 멸빈자를 종단화합 차원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헌 제128조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멸빈자 구제에는 종헌 개정이 필요하다.

멸빈자 사면과 관련, 중앙종회에서는 최근에만 2003년 4월, 2004년 3월에 이어 2007년에는 법전 종정스님 교시 후 개정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부결됐었다.

밀운 스님은 "기자회견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을 만나 멸빈자 사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여법한 승가화합의 뜻에 따라 종회의원 스님들이 현명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운 스님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총무원측은 3월 개최될 중앙종회에 총무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정우 스님,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 피선



불국사 월정사 선운사 등 문화재 보유사찰 주지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으로 구성된 문화재 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에 정우 스님(통도사)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2월 13일 '2009년 제1차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제정 · 공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종관위 신임위원장 일관 스님

2월 10일, 제77차 종관위 회의서 선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 신임 위원장에 일관 스님이 선출됐다.

종관위는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7차 회의를 열고 일관 스님(불암사 주지)을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회의에는 재가 종무원에 대한 욕설로 물의를 빚었던 무애 스님(前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사과하고, 박인성 원장(동국대 역경원장)이 출석해 동국대 역경원 운영현황 등을 보고했다.

조동섭 기자

종책연구모임

불교무설연구소 개원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본사주지와 종회의원 등 조계종 중진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책연구소가 설립돼 눈길을 끈다.

불교무설연구소(소장 정호, 오산 대각사)는 2월 13일 서울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524호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연구소 감사는 정념 스님(양양 낙산사), 호성 스님(의성 고운사)이, 운영위원으로는 노현 스님(보은 법주사), 일화 스님(화성 무우사), 법안 스님(북한산 금선사), 법만 스님(고창 선운사), 진원 스님(해외 정진중)이 참여했다.

(02)723-7727

조동섭 기자

조계종 차원 상제례 정립한다

포교원, 불교상제례연구위 발족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10일 '불교 상제례문화 연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말까지 <임종의례 지침서> <임종 후 3일 장례시안>을 발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을 위원장으로,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교 스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불교상제례문화 연구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과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을 임명했다.

<임종의례 지침서>와 <임종 후 3일 장례시안> 발간분야위원에는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강동구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김일명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미등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유재철 · 박명근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비지니스학과), 구미래 연구실장(성보문화재연구원), 손남숙 실장(한국생활문화연구원), 진철승 원장(불교문화정보연구원), 이기선 소장(불교조형연구소), 이재우 기획실장(연화회)을 위촉했다.

이상언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봉행

제 8대 총무원장 화엄 종사 이 · 취임법요식

삼보에 귀의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종하시는 전국 종도 여러분과 일붕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산하 본 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 및 지난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제8대 총무원장 화엄종사의 이 · 취임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예하의 법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이사진

재단이사장 경 원
재단상무이사 혜 광
재 단 이 사 혜 운, 도 기, 일 명, 화 엄, 자 명, 경 담, 담 화
재 단 감 사 혜 천, 혜 원

♣ 다 음 ♣

1. 일 시 : 2009년 3월 5일(음. 2 .9) 수요일 정오 12시
2. 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3. 준비사항 : 당일 11시 30분까지 입장완료
4. 연 락 처 : 총무원 / 봉행위원회 (02)998-8161,2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봉행위원회

대 법 주 제4세 종정 붕해 대종사
증 명 무찰스님, 금봉스님, 청송스님, 송은스님, 원각스님, 수암스님, 명종스님, 혜운스님, 도기스님

봉행위원장 총무부원장 법 성
봉행부위원장 총 무 부 장 용 운
추진위원장 중앙종회의장 경 원
추진부위원장 종회사무처장 삼 주
기획위원장 호 계 원 장 용 암
기획부위원장 교무부장 지 언, 사회부장 혜 성
준비위원장 포 교 원 장 도 안
준비위부위원장 교육부장 법 해, 홍보부장 고 봉
집행위원장 감 사 원 장 석 성
집행부위원장 재 무 부 장 석 담
진행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해 동
진행부위원장 규 정 부 장 진 송

총무분과위원장 강원동부종무원장 보 해
강원서부종무원장 동 청
교무분과위원장 경 남 종 무 원 장 보 광
섭외분과위원장 경기남부종무원장 광 은
경기북부종무원장 도 혜
동원분과위원장 울 산 종 무 원 장 지 운
대 전 종 무 원 장 용 주
봉사분과위원장 전 남 종 무 원 장 혜 성
제 주 종 무 원 장 경 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8대 총무원장 이 · 취임 봉행위원회

"방재시설 확충·제도 정비 최선 다할 것"

숭례문 참사 1주년…문화재방재대책 여전히 부족



숭례문 복구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문화재청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2008년 2월 10일 갑작스런 화재로 전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숭례문 참사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참사 1주년을 맞아 2월 10일 숭례문 복구현장을 일반에 공개했으며, 3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회 '숭례문-기억, 아쉬움 그리고 내일' 展을 개최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대책 마련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동안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흥인지문 등 문화재 118건(139억원), 궁 · 능 · 유적 20건(31억원)에 침입차단 및 화재감지 기본설비 정비를 구축했다. 또 목조문화재 120곳에 안전경비인력 382명을 추가 배치하고, 국보 · 보물급 목조문화재 150곳에는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사 1주년을 맞아 화재대응 합동소방훈련(2월 10일 덕수궁 중화전), 방재 실태 현장 점검(2월 6일 종묘), 문화재 시설물 무단침입방화대응 합동 훈련(2월 4일 수원화성 행궁) 등도 진행했다.

이건무 청장(문화재청)도 10일 숭례문 복구현장에서 "숭례문을 잃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화재 관련 예산도 증가한 만큼 방재시설 확충 및 법 · 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목조 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재청이 1월 19~23일 진행한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에도 드러난다. 당시 점검에서 일부 문화재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 가스 · 전기시설 등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 보수 및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717호 보도). 문화재청이 10일 행사에서 "2009년에도 문화재 193곳에 초동 · 자동진화 설비를 마련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454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 323건을 마련하는 등 인적 · 물적 · 법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진성 기자

"강호순도 사형집행만은 안된다"

종교·시민단체, 사형 집행에 반대성명

종교 · 인권단체들이 사형제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사형제폐지운동본부(대표 진관)를 비롯한 종교 · 인권단체들은 2월 11일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미집행 사형수에 대해 집행 움직임을 보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제도를 민심수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국회, 법무부 등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이사회 쇄신 한목소리

서불대, 학내구성원 성명서 발표 잇따라

"이사장 지욱 스님은 교수의 부당해임을 즉각 철회하고 이사장직을 설립자 덕해 스님에게 즉각 반납하라!"

법원판결을 통해 복귀한 황윤식 총장과 박성현, 성승연 교수를 해임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 이사회(이사장 지욱)의 2월 3일 결정에 서불대 교수 · 학생 · 직원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돼 이사회와 학내구성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성명서에서 표현의 수위는 조금씩 달라도 △현 이사장 지욱 스님을 비롯한 이사회 쇄신 △황윤식 총장과 교수,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철회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서불대 교수협의회(회장 김명권)는 6일 제4차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 지욱 스님의 불법학사 개입과 권한남용, 일부 교직원의 전횡으로 서불대가 분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사장 지욱 스님은 이제라도 스승인 덕해 스님에게 참회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제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인사비리 관련자 사퇴 △지욱 스님의 이사장직 반납 등을 요구했다.

서불대 직원협의회(회장 황혜연)와 학생회도 8일 성명서를 내고 이사회 조치에 반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2008년 무더기 학생 제적사태에도 침묵하던 서불대 직원들이 처음 소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서불대 사태가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의 상습적인 총장 해임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 이사회는 2008년 6월 총장 해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직원들을 무참히 해임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도 성명서에서 "이사회의 결정통보로 순식간에 총장, 교수가 해임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학생이 맘 놓고 학문을 논하며 수업에 임할 수 있겠냐"고 통탄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측은 서불대 총장권한대행 명의의 입장서를 발표해 사태 진화에 다급해진 모습을 보였다.

서불대 총장직무대행(김영란 교수)은 2월 8일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황윤식 前 총장의 지위를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황 前 총장의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와 직원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신임교원 채용과 교원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교원들을 비밀리에 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불대가 학내분규를 종식하고 수행 · 명상전문 대학원대학으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미륵사 사리장엄 불교계와 말로만?"

문화재청, 조계종과 연등회에 다른 대응 물의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출토시 이운 절차 없이 진행된데 대해 각계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일관되지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는 2월 9일 "문화재청이 미륵사지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연등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해체당시) 유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돼 이운의식 등에 대한 불교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정념 스님(재무부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수경 스님(문화부장) 등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11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1월 22일 조계종 문화부가 1월 22일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문화재청이 이를 묵살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이번 문화재청의 기관별 대응에 조계종의 위상을 염려하는 이들도 많다. 문화재청의 일관성 있는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사리구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교단자정센터

명섭 스님 관련 논평 발표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국고보조금 편취로 구속된 명섭 스님(전 화엄사 주지)과 관련된 논평을 2월 12일 발표하고, 종단의 고위공직자 호계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월 5일 구속된 주지 명섭 스님 사건은 현 종단 일부 스님들의 도덕성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실추된 조계종단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계종 호법부는 미비한 '호계제도'를 개선해 돈과 관련된 세간적 비판과 모멸을 받지 않는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명섭 스님은 국고보조금 24억, 문화재관람료 13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노덕현 기자

"시대의 등불과 사회의 목탁되겠다"

국회 정각회, 기축년 신년법회 봉행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는 2월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초청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과 이해봉(한나라당 불자회장) 최문순(민주당 연등회장) 안홍준(정각회 부회장) 이계진 주호영 박선숙 최재성 조문환 의원 등 정각회 소속 의원 및 국회직원신도불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마음의 주인(心主)으로 정당하고 떳떳하게 열심히 살면서 객의 고달픔을 나누는 것이 참다운 불자"라며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조계종 표준 <금강경> 대승정종분을 독송 후, 안홍준 의원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불교가 성하고 흥할 때 나라가 바로 섰다"며 "불퇴전의 정진으로 불교를 외호하는 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역경원장…조사위' 발기인대회 개최

위원장에 초격 스님 추대, "오 총장 공개사과에 주력"



2월 12일 동국역경원장일방해임진상조사위원회 발기인대회에는 혜거 스님(금강선원장)과 주영훈 이사장(행원문화재간)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월운 스님에게 결례 범한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사과하라!" "동국대 이사회는 불자들에게 해명하라!" "조계종 총무원은 동국역경원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밝혀라!"

前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에 대한 동국대의 일방적인 해임결정에 불자들이 관련자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역경원장일방해임진상조사위원회 주비위(위원장 이건호)'는 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대회에는 동국대의 부당한 처사와 종단의 무관심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혜거 스님은 격려사에서 "원력으로 일생을 역경에 헌신한 스님을 홀대하면 앞으로 누가 역경에 힘쓰겠냐"고 반문했다.

월운 스님의 전강제자 취봉 스님은 "1964년 1월 29일, 청담 스님이 동국대 온실서 재배해 수확한 토마토 2과를 운허 스님에 전했다는 미담이 있다. 이런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종단, 그런 미덕을 가르치는 상아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참가대중의 만장일치로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동진위)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장에 초격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 · 종회의원)을 추대했다.

초격 스님은 "사부대중의 순수한 열망을 모아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진위는 이날 7인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예고하고 관계기관에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초격 스님은 행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모임은 월운 스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동진위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순수한 모임임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韓國民俗哲學研究所 所長 方弼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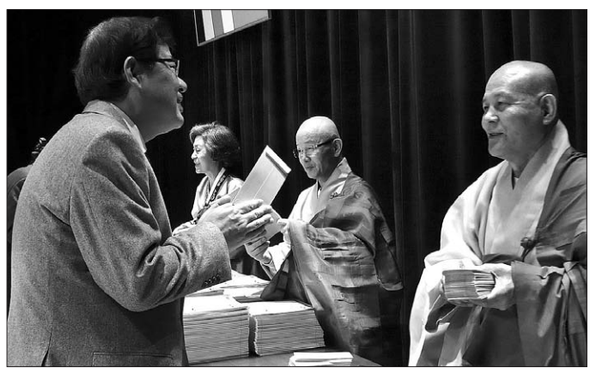
주역 개인지도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寶明寺 周易講義 講師
前 世界佛教徒 友誼會 弘報次長
現 韓國易理學會 中央學術委員
現 韓國民俗哲學研究所長

‘불교인재 발굴 및 양성’ 다짐

조계종 중앙신도회 재가 지도자 신년하례회



2월 12일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주최한 재가불자 신년하례회에서 지관 스님, 혜총 스님, 김의정 회장(사진 오른쪽부터)은 참가자 일동 모두와 악수를 나누며 윤장하례를 진행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공연장에서 기축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신도국장 정우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조문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김의정 회장,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중앙신도회 구자선 상임고문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신도회는 불교인재개발원을 통해 나라와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불교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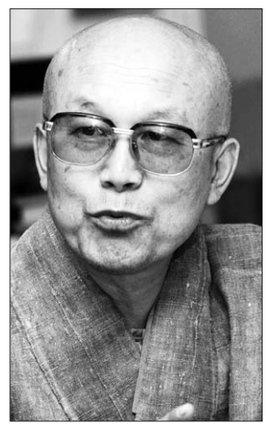
지관 스님은 “복은 바랄 것이 아니라 지어야 할 것이며 ‘삼계화택(三界火宅)’ 같은 세상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수행의 삶을 살라”며 “진제와 속제, 색과 공, 부처와 중생,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니 누구나 대심(大心)을 갖고 성불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신년하례회는 2008년 사업 영상 보기 및 신년 브리핑, 참가자 일동 모두 악수로 발심을 다지는 ‘화합과 정진의 윤장하례(돌아가며 악수하는 예법)’가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수도권 간화선 수련회 시동!

행복제작소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



참선 수행을 경험한 많은 초심자들은 기존 참선 수행과정에서 화두 참구에 어려움을 느끼고 위빠사나, 요가, 명상 등으로 수행의 행로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간화선은 어렵다’는 초심자나 재가수행자들에게 실참(實參)의 용기를 주고 편안하게 선(禪)에 입문을 도와주는 참선대중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서울 인근에서 가장 큰 전문수련원으로 조사선풍을 진작시키고 있는 안성 활인선원(선원장 대효 · 사진)은 3월 13~15일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사회적으로 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참선대중화의 시작을 알리는 법회가 될 전망이다. 정진대법회에서 대효 스님은 최상승선, 간화선의 길, 올바른 화두참구 방법과 간택 등을 하루 3번 집중 지도 점검한다.

대효 스님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단순한 것, 근원적인 것을 찾게 된다. 간화선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다”며 “간화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잘못된 선을 공부한 사람들이 선이 어렵다며 길을 헤매는 것을 보고 법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참선(參禪)은 자신의 삶을 밝히고 최상의 지혜와 통찰의 극치로 갈등없이 사는 깨달음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길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활인선원은 앞으로 가족 단위의 동참 희망자들을 위해 주말단식수행 등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3개월 과정의 단기출가 등 안거단식수행을 진행해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 설 전망이다.

제주 원명선원의 중앙연수원격인 활인선원은 지난 해 11월 9일 경기도 안성 죽산면 매산리 비봉산에 개원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참선 지도를 해온 대효 스님은 1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법당 · 선방 · 요사채 · 샤워장 등 8개 동의 수련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간화선전문 수련원이다. (031)671-7707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경전 · 참선공부 줄이어

안거 해제는 또 다른 공부의 시작. 줄이은 경전 · 참선 강좌 등이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출가스님들의 공부모임인 경전연구회(회장 지장)는 3월 18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3~6 옥수동 미타사에서 2년 결사 경전강좌를 개설한다.

통광 스님(칠불사 주지)은 <진심직설> <몽산법어> <이입사행론> <증도가> <간화결의론> <원각 경> <달마대사 관심론>을 2년간 강의한다. 뜻이 있는 조계종 스님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동참비는 1년에 50만 원 이 다 . 선 착 순 50명 . (010)7963-7070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설립 3주년을 기념사업으로 무비 스님의 <임제록> 대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4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7~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20만원, 선착순 130명 접수받는다. 강좌를 마친 9월에는 남악 · 마조 선사 유적지를 별도로 순례할 예정이다.

또 불교인재개발원은 ‘간화선 입문-나를 찾는 선’ 프로그램을 통해 간화선의 대중화와 생활화 사업도 펼친다. 재가자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5월 25일 매주 월요일 7시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화두를 주고, 참선 실수를 지도한다. 선착순 25명. (02)735-2428

이상언 기자

정월대보름 각 사찰 행사 풍성

인간방생법회 · 달집태우기 등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는 달이 새해 첫 보름달을 이룬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각 사찰 등에서는 방생대법회, 달집태우기 등 풍요로운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2월 9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제29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방생법요식, 달맞이 방생의식, 삼재소멸 화합기원 달집태우기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법혜 스님을 비롯한 법원 스님(동화사 조실), 임문우 회장(대구사원주지연합회신도회)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됐다.

법혜 스님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방생이 아닌 남북통일 · 국가경제 회생 · 국가재앙예방을 기원하며 생활 · 실천불교로 거듭나자”며 “방생법회는 달맞이 풍요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인간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사” 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행사가 인간 방생의 차원에서 함께 진행됐다.

세계적인 가뭄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한 기우제도 열렸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는 ‘제3회 화계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문화한마당’을 열고 800여 사부대중과 함께 기우제를 올렸다.

수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나라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가뭄도 심하다”며 “공동체의 무사안녕과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원하자”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교과과정 개편 · 교양대학으로서 특징 부각



대원불교대학이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3월 4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수업장면.

대원불교대학이 2009년부터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관계자는 “일반불교교양대학과 차별화를 기하고 특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미지 쇄신과 21세기에 걸맞은 교양대학으로써 불교, 인문, 불교문화 교육에 전념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새롭게 개편됐다. 학부는 ‘불교인문학과정 Ⅰ’, ‘불교문화학과정’ 등 3개 분야로 개편했고, 대학원에서는 ‘불교인문학과정 Ⅱ’로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수강 등록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개강은 3월 4일. (02) 707-1072

이상언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불자회 정월법회 봉행

보건복지가족부 보련회(회장 이상인)는 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월법회를 봉행했다.

‘마음 너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한 오심 스님(울산 월봉사 주지)은 이날 법회에서“불교는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차리라”고 말하고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공무원으로 언제나 주인공이 돼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를 마치고 오심 스님은 보건복지가족부 불자회를 위한 템플스테이 등 신행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서울 공생선원 참선입문 개강=서울 공생선원은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선반, 3월 4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선원 법당에서 참선입문을 개강한다.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혜거 스님 능엄경 특강도 개설된다. (02)900-2448

●양산 통도사 서축암 ‘산스크리트어 기초강좌’=양산 통도사 서축암은 3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산스크리트 기초강좌를 개설한다. 서축암 감원 도웅 스님이 6개월 과정으로 지도하고 산스크리트어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 10만원. (055)381-9666

●석천선원 동계생활참선 단기수련회=석천선원은 2월 20~22일 포천 자인사에서 동계 생활참선 단기수련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일반 15만원, 학생 10만원 선착순 50명 접수. (019)472-1092

●계룡 무상사 ‘참선방’ 운영=계룡 무상사는 3월2일부터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오후1~3시 참선방을 운영한다. 입승 스님들과 함께 참선을 진행하며 단계별로 대봉 조실스님과 대진 주지스님이 법문한다. 회비는 10만원으로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42)841-6084

불교지도법사 과정(3년) 2009년도 불교대학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수행본기경(아함경)	김형준 교수
		화엄법계연기	정엄 스님
근본불교학과 (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금 강 경⑦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시간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월 1일 ~ 3월 10일(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수행본기경(3월 9일) 월요일 • 화엄 법계연기 (3월 10일)화요일
• 근본불교학과(금강경) : 3월 5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직장인을 위한 불교과정(2,3년)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요가삼밀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년 100명) • 불교다도학과(3년 3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년 30명) • 불교한문학과(2년 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30명) • 요가삼밀학과(2년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2월 1일 ~ 3월 11일 • 입학금 : 250,000원

전형방법	개 강 일 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불교학과 통신반) 2월 접수중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3월10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법사과정) : 3월17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례 문 화 학 과) : 3월10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미 술 학 과) : 3월10일(화)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 문 학 과) : 3월 5일(목)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3월11일(수)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요 가 삼 밀 학 과) : 3월 9일(월)

불교의식 과정(1년) 불교한글의식교육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한글의식반	1 년	매주 토요일(오후 2시~5시40분)	심만춘스님, 문종순법사	전통의식이론, 한글의식실기
• 전통범패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범패실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한글의식반 30명(1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 학 원 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3월 7일 토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토요반) 오후 2:00 ~ 5:40
• 범패반 30명(2년)				• 매주 금요일 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3월 7일(토) 오후 2시 (한글의식반)
3월 6일(금) 오후 3시 (범패의식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원서교부및 접 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마음은 고요하나 감각은 예리하게 알아차려

10 생활 속의 요가수행(하)



요가는 온 몸에 대한 주의력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아사나' 수행을 기초로 한다. 사진은 아도무카 스바나 아사나 수련장면.

요가 · 불교 같은 시기에 전래… 요가종 번성
8단계 중 '아사나'는 수행의 시작이자 기초

#아헹가 요가란?

우리나라에 요가가 처음 들어온 것은 불교와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그 당시의 요가는 고전적인 라자 요가(명상)였는데, 한때 요가종이라는 종파가 형성돼 크게 번성했다. 동화사, 불국사, 법주사, 유가사 등은 요가종 계통의 사찰이었으며 그 자취는 지금까지도 승가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요가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60년대 일본에서 들어온 건강 요가의 영향이 컸다. 2000년부터 서구에서 일기 시작한 요가의 열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올 때까지는 일본식 건강 요가가 한국 요가의 주류를 형성했다. 건강 요가는 서서 하는 자세가 거의 없이 앉거나 누워서 수련하는 요가로, 꾸준히 행하면 건강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지루하고 단조로워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반면 서구에서 유행한 요가는 건강을 추구하면서 휘트니스의 개념을 정교하게 결합했으며 역동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최근 2~3년간 서구에서 영향 받은 우리나라 요가도 그 열기가 대단했으나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금은 열기가 식어 있는 형편이다.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서구에서 유행한 요가와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요가에 차이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루하고 단조로운 기존의 건강 요가와 역동적인 휘트니스 요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나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두 종류의 요가를 어설프게 결합시킨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구에서 유행한 요가에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인체 해부학에 바탕을 두고 자세의 정확성과 순서, 지속 시간및 휘트니스를 강조하며 요가 자세를 명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헹가 요가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인의 체형과 취향에 맞추어 단지 휘트니스와 역동적인 자세에 중점을 둔 아스탕가 요가이다. 현재 전 세계 요가계를 대표하는 흐름은 아헹가 요가이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헹가 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헹가 요가는 인도의 살아 있는 요가의 거장 B. K. S. 아헹가에 의해 체계가 갖추어진 요가로, 특히 아사나(요가 자세)와 프라나야마(호흡 조절법)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건강 요가로만 인식되던 기존의 요가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아헹가 요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①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 ② 올바르게 조정된 아사나의 순서, ③ 적절한 아사나의 지속 시간, ④ 스트레스성 질환, 현대병, 성인병에 탁월한 치유 효과(메디컬 요가), ⑤ 보조 도구의 활용, ⑥ 행위 속의 명상(역동적인 명상) 등을 들 수 있다. 아헹가 요가는 고전 요가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강 요가, 휘트니스 요가, 명상 요가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화된 전문 요가이다.

#건강으로 이끄는 생활 속의 요가 자세

① 아도무카 스바나 아사나: 얼굴을 아래로 한 개 자세로 두 손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바닥에 짚고 두 다리는 손으로부터 1m 정도 뒤로 뻗고 두 발도 어깨 너비만큼 벌린다. 엎드린 상태에서 두 손과 두 다리에 똑같이 힘을 주고 엉덩이는 천정 쪽으로 올리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전신을 쭉 뻗는다. 30초~1분 정도 유지한다. 이 자세는 자신감을 높이고 두통과 고혈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심장을 쉬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갱년기와 관련된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줄여 준다.

② 비라 아사나: 영웅처럼 당당히 앉는 자세로, 먼저 두꺼운 담요 위에 꿇어앉는다. 무릎을 붙인 채 두 다리를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벌린다. 이때 두 다리는 정확히 평행을 이루어야 하고, 가슴은 활짝 펴면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골반과 무릎이 굳은 사람은 엉덩이 밑에 담요를 깔고 행하고 차츰 높이를 낮춘다. 자세를 풀 때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나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이 자세는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그리고 다리의 피로를 풀어 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자에 많이 앉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③ 반다코나 아사나: 나비 자세를 말하는데,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두 발바닥을 맞댄 다음 두 손으로 발가락을 감싸 잡고 발을 회음 쪽으로 당긴다. 숨을 내쉬며 상체를 바닥 쪽으로 내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10초~1분 정도 유지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 가슴 순으로 상체를 들어올린다. 2~3회 되풀이한다. 이 자세는 특히 비뇨기 및 부인과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미혼 여성들이 꾸준히 수련한다면 출산할 때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자연 분만하게 될 것이다.

④ 파스치모타나 아사나: 몸의 뒷면을 강하게 뻗는 자세이다. 앉아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두 손으로 두 발이나 발목을 잡은 뒤 숨을 내쉬면서 몸통을 다리 위에 내린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10초~1분 정도 유지하고, 머리, 가슴의 순으로 상체를 들어올린다. 2~3회 되풀이한다. 이 자세는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심장에 휴식을 주며, 혈압과 맥박을 정상으로 만든다. 또 기억력을 좋게 하고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킨다.

⑤ 의자 위에서 행하는 바라드바자 아사나: 몸 오른쪽을 의자 등받이에 대고 의자 위에 옆으로 앉는다. 두 손으로 각각 의자 등받이의 바깥쪽을 잡은 다음,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은 밀면서 숨을 내쉬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튼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10초~30초 동안 머문다. 2번 행하고 반대편에서도 되풀이한다. 이 자세는 척주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등 아랫부분의 관절염을 치료한다. 또 복부 근육을 단련시키고 소화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나이가 들었거나 과체중일 때 적합한 자세이다.

⑥ 싱크대나 책상을 잡고 행하는 우타나 아사나: 싱크대나 책상에서 1m 정도 떨어지게 서서 두 손으로 싱크대를 잡고 몸통과 두 다리가 직각이 되게 한다. 이때 두 손과 두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린다. 요추를 기준으로 상체는 머리 쪽으로 뻗고 엉덩이는 꼬리뼈 쪽으로 뻗는다. 척추를 뻗으며 두 팔은 손 쪽으로, 두 다리는 발뒤축 쪽으로 쭉 뻗는다.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헹가 요가> 혹은 <아헹가 행법 요가> 참조)

#마음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

고대 요가를 집대성한 파탄잘리가 말했듯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식(chitta) 동요(vrtti)의 억제 nirodhah', 곧 명상을 통해 오감을 제어하여 산란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통과 비애로부터 해방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불교 수행의 목표도 이와 다르지 않아 우리 안에 불성의 씨앗이 내재돼 있음을 믿고 여러 방편으로 수행하여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는 많은 수승한 수행법들이 있지만 육체 수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의 전통은 선불교 영향으로 많이 퇴색됐다. 요가, 특히 아헹가로 대표되는 현대 요가는 해탈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행의 도구인 육체를 먼저 다루게 한다. 아사나와 프라나야마의 수련에 의해 우리 몸은 보다 높은 단계인 명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적인 장애들도 함께 해결되는 수가 많다. 건강한 몸은 밝고 안정된 마음으로 이어지고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외부 환경도 개선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아헹가 요가에서는 8단계의 요가 중 무엇보다 아사나를 강조한다. 아사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행의 시작이며 기초이기 때문이다. 아사나는 단지 육체적인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호흡, 마음, 지성, 의식, 양심, 그리고 존재의 근본자리를 통합하는 수단이 된다. 아사나로 이러한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사나를 수행할 때 특히 깨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즉 지성과 지각 작용이 뇌뿐 아니라 육체에도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나 수행이 올바르게 이루질 때 온몸에 대한 주의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른다. 마음은 내적 각성 상태에 들게 돼 고요하고 비어 있으나, 감각은 예리하게 깨어 있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아차린다. 이것이 바로 행위 속의 명상이며, 여기에 수행으로서의 요가 아사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금세기 최고의 요가 스승 아헹가 선생은 다가오는 2~3세기는 요가를 대체할 운동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요가를 올바른 방법에 따라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얻어 명상 수행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요가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안다면 요가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ww.iyenga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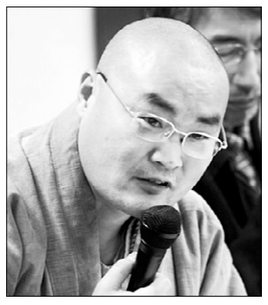
현천(청량선원장 · 서울아헹가센터 운영)



이웃 종교 RELIGION

“홀로코스트 탐욕에서 비롯된 것”

종교인네트워크 토론회서 종명 스님 주장



홀로코스트(Holocaust)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고유명사다. 수백만 유대인들의 죽음을 연상시켰던 홀로코스트가 이제는 유대인이 건국한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가 2월 5일 서대문 한 백교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사태를 종교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단체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으로 각 종교계 대표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는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임지현 교수(한양대 서양사)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기억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희생자의 고통을 건국의 도구로 삼아 민족주의를 강화한 역사정 과정을 짚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라 정의했다. 임 교수는 “이스라엘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나치의 학살이 유대인을 비롯해 집시, 공산주의자, 슬라브인, 성소수자들에게도 자행됐지만 오로지 유대인들만 희생자인 것처럼 나치 희생을 전유했다”며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항변 · 반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는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정당방위’라고 발언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서구 중심주의적 성공에 예속된 식민화된 자의식의 발로”라며 비판했다.

가톨릭측 토론자 박준영 연구위원(우리신학연구소)은 “희생자가 집단적 희생자의식을 키우는 것은 결국 가해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홀로코스트 너머의 신학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논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측 토론자로 나온 종명 스님(화계사 사회국장 · 사진)은 “불교적 관점에서 홀로코스트는 ‘무아(無我)’에 반하는 ‘아(我)’, 즉 나 이외의 모든 것을 타자화시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나은 기자

다윈 탄생 200주년 진화·창조론 논쟁 벌어져

한국인 62.2% 진화론 믿어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이 2월 12일 탄생 200주년을 맞았다.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다고 밝힌 그의 주장은 종교적인 반감속에서도 급속히 보급돼 생물학은 물론 사회 전반을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다윈 탄생 200주년을 맞아 미국과 영국 양국간 진화 · 창조론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2월 9일, “미국과 영국 양국 국민 다수가 기독교인이지만 다윈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63%는 인간이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다고 믿거나, 절대자의 뜻에 따라 현재의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창조론자들은 “교실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며 “창조론의 변종인 ‘지적 설계론(지적인 존재가 자연을 창조했다는 이론으로 창조론의 변형된 형태)’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34개주가 진화론 교육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윈의 사상은 홀대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다윈의 고향 슈루즈버리에서는 다윈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다윈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영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이유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하지 않는 영국식 종교 문화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방송 채널이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설문한 결과 62.2%는 진화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6%로 미국보다 낮고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론을 불신하는 응답자들은 ‘과학적 불충분’(41.3%),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아서’(39.2%)라고 응답했다.

이나은 기자

“여성불자 힘으로 성폭력 근절해요”

18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개소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성폭력 여성 피해자 상담 활동에 나선다.

2월 18일 개소되는 (사)지혜로운여성 부설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 · 사진)는 여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에서 최초로 설립된 상담소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불교계도 여성인권과 성폭력 피해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활동 상담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해자 교정상담을 통한 재범방지 △여성불자 인력 전문화 및 역량강화 △불법을 실천하는 여성인권 지원활동 △불교계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단순한 상담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와 의식 변화운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상담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전화와 면접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사으로 진행되며, 성폭력 전문상담원 등 여성 불자들에 대한 전문 훈련 등도 진행한다.

김영란 소장은 “피해자, 성범죄자 등에게 12년간 폭력상담을 해왔지만 상담으로도 완벽히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앞으로 불교심리상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아동 · 청소년 · 여성 성폭력 상담을 비롯한 불교계 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 불자의 힘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 여성 불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2월 23~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법회관에서 ‘성폭력 성 상담 자원 상담자 양성교육’을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한다. 한국사회의 성문화, 불교와 섹슈얼리티, 집단 상담,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기법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 성폭력 상담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녀의 성교육 등에 관심 있는 부모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어 3월 16~27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64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수료 후 여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또한 교육 수료 후 이 상담소를 통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

한편 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3시 상담소 개소식과 함께 상담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행사를 진행한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어르신 일자리 창출 복지관들 나서

공공참여 · 복지 등 다양한 활동 가능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는 기업내 구조조정과 실업률 증가를 가져왔고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올해 초부터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마련이 누구보다 힘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교계 산하 각 복지관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031-919-8677)은 2월 18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 및 접수했다. 모집된 어르신들은 3월 2일~9월 30일 7개월 동안 △공공참여형(거리환경 개선사업, 교통질서 계도 사업 등) △복지형(독거노인 돌봄 사업) △시장형(전통찻집)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 054-633-6415)은 장애인의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월 18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20명을 모집했다. 모집된 이들은 2009년 3~9월 7개월간 복지형 건강도우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단양노인 · 장애인복지관(관장 해두, 043-423-2323)은 2월 10일 ‘2009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400여 명과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20여개의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해 구인 · 구직 연결의 장을 마련했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 02-571-2988)은 2월 28일까지 일자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만 6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발된 어르신들은 도서관 관리, 물리치료보조, 환경미화 등을 수행한다. 주 3회 1일 3시간 근무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복지관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욕구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갖추어진 곳은 많지 않다.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보장을 위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지원으로 소일거리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 063-563-0009)은 2월 27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고창군 각 읍 · 면사무소 및 고창군노인복지회관 1층에서 받으며 면접을 거쳐 25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들은 4월~7월 10개월간 △교육형(교육기관 파견강의 활동 등) △공익형(공공도서관 및 도서실 사서보조) △복지형(소외계층 및 노인가정 방문 등)사업에 참여하며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나은 기자

정월대보름 “한해 행복 기원”

교계산하 복지관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무사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2월 9일 1 · 3세대 통합 대보름 민속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민속놀이를 통해 세대 간 화합으로 풍성한 정월대보름을 지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어르신 200명과 학생시설관리 봉사자 15명 등이 참석해, 척사대회와 제기차기, 투호놀이, 부럼나눔 등 민속놀이를 진행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행정안전부 간부부인회(이병채 회장)와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장애인 및 어르신을 모시고 정월대보름맞이 무료대중공양을 실시했다. 부인회는 이번 행사에 기금 150만원을 후원하고 회원 9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9일 3층 중앙공원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동아리 어르신들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소원문 달기, 제기 만들기, 전통놀이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대원불교대학이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신입생 모집안내** (2년 4학기 과정 / 주 · 야간반)

2009학년도 전학기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09년 2월 10일(월) ~ 2009년 3월 4일(수)	
모집학과	◇대 학 : 불교인문학과정Ⅰ, 불교문화학과정, 불교명상상담심리학과정 ◇대학원 : 불교인문학과정Ⅱ (심화과정)
입학자격	◇대 학 : 재가불자 (일반인, 직장인) ◇대학원 :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강의시간	◇주간반 : 15:30 ~ 18:00 / ◇야간반 : 19:00 ~ 21:30
수 업 료	◇대 학 / 한 학기당 30만원 ◇대학원 / 한 학기당 30만원 *카드결제 가능 *교재비 별도
장학혜택	성적우수 장학, 근로 장학 외
특 전	대원불교사상강좌 등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개설하는 국내외 명사 초청 강좌 무료 청강
상담 및 문의 (원서교부)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 3층 ☎ 02-707-1072

■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

불교인문학과정 – 대학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있는 모든 자들의 존재 의의를 발견하고 존중하며, 인간의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를 고양함과 동시에 그 구현 과정과 방법을 탐구하는 바탕이라는 점에서 불교 정신과 사상은 그 자체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 위에서 출발하여,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복지, 생태, 환경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의 획득과 심화과정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은 특성에 입각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각기 별도 분리된 개별 분야로 취급하기보다 상관 · 상의관계를 살펴나가는 통섭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불교와 사회철학 Ⅰ,Ⅱ, 현대사회와 불교사상, 불교의 인문사회사상, 불교와 사회생물학, 불교와 현대물리학,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Ⅰ,Ⅱ

불교문화학과정 대학
인류유산의 정화인 불교문화의 이해를 위하여 불교의 원리와 관련 사상 및 역사관을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관계와 문화예술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과 경험을 통하여 새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과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불교문화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근본불교의 이해, 한국불교문화사,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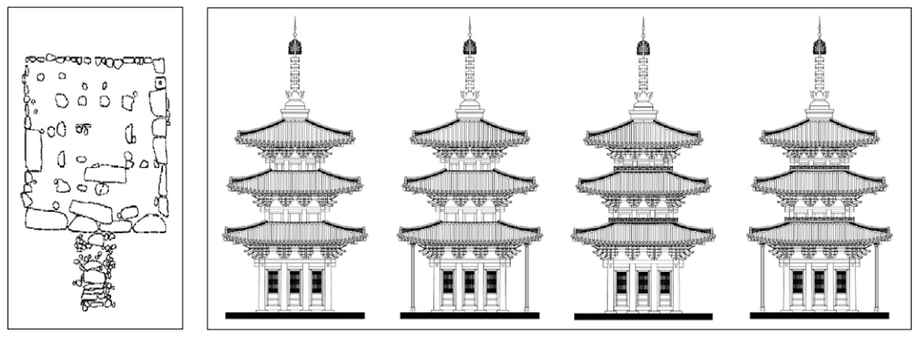
불교명상상담심리학과정 대학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포함한, 상담의 제반이론과 기법을 통섭하고 불교를 통해서 상담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상담을 통하여 부처님법을 실현하여 다양한 명상방법으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명상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불교에 명상과 상담을 접목시켜 가능한 한 이상적인 교육방법에 접근시키고자 한다. 명상과 상담 양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전위주 교과과정으로 교육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마음챙김과 명상 Ⅰ,Ⅱ, MBSR이론과 실제, 자애명상 Ⅰ,Ⅱ,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정신분석입문과 이상심리학, 호흡명상심화과정

불교인문학과정(심화과정) 대학원 Ⅱ
불교의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보다 깊은 상관관계와 상통하는 원리들을 연구, 교육하고,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반 학문이 추구하는 풍요롭고 수준 높은 인간생활의 달성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서 새로운 현대 지식인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호 관계 및 상통하는 원리 파악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 연구함으로써 인문 · 사회 · 과학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자아초월과 뇌과학 Ⅰ,Ⅱ,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Ⅰ,Ⅱ,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명상상담과 심리치료, 불교예술과 심리치료,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문화대학 www.kbpf.org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 3층 ☎02-707-1072

동편에 목탑, 서편에 법당 복원

영암군, 문헌·발굴 통해 사자사지 목탑복원 추진



사자사지 발굴조사 후 드러난 목탑지 평면도(왼쪽)와 천득염 교수가 제안한 4가지 목탑 복원 계획안.

문헌에만 존재하던 고려시대 목탑이 국내 최초로 복원된다.

목탑은 목부재 특성상 석탑을 이루는 석부재보다 부재 수급과 가공이 쉬워 뛰어난 예술성을 갖춘 문화재가 많다.

현존 유일의 목탑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이나 세계 최고(最高)로 추정되는 신라 황룡사9층목탑(높이 약 82m)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십여 미터 높이로 조성되는 규모는 당시의 건축기술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목탑 내외를 장식한 단청 등은 시대의 문화수준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다.

하지만 화재 등에 소실되기 쉽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는 단점으로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많지 않다. 특히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12곳의 목탑지(남원 만복사지, 개풍 흥룡사지, 하남 천황사지, 남원 실상사탑지 등) 가운데 복원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국내 최초로 고려시대 목탑을 복원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2월 10일 '영암 사자사지 목탑복원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영암 사자사지(師子寺址,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197호)는 1995년 순천대 박물관에 의해 '사자사지' 명문 기와가 발견되면서 영암 월출산 사자봉 아래의 탑지와 건물지가 확인됐던 곳이다. 현재 사자사지목탑은 소실 · 멸실된 상태로 문헌자료마저 부족해 실체규명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태.

천득염 교수(전남대)는 주제발표 '영암 사자사지 목탑복원 계획안'을 통해 문헌과 사지 발굴작업으로 드러난 사자사 목탑의 실체와 복원 계획 등을 설명했다.

천 교수는 "고려전기 건축된 사자사목탑은 방형 1칸 3층으로 추정된다"며 "내진초석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내부에 사천주(목탑을 중심으로 네 모서리에 배열된 기둥) 없이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같은 무량구조로 건조됐을 것"이라 말했다.

사자사지 목탑 설계는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보은 법주사 팔상전 등을 복원의 기본모델로 최근 건립된 진천 보탑사 목탑, 황룡사9층목탑, 미륵사지 중앙목탑 등도 참고하게 된다.

영암군은 사자사지 동편에 목탑을 세우는 한편 서편에는 법당을 복원하는 등 사자사지 복원을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득염 교수는 "사자사지는 산지사찰로 전형적인 가람형식을 따르지 않고 동-서축에 목탑과 금당이 자리했을 것"이라며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목탑 공포 및 상륜부 체감비 등에 대한 학술적 고증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월출산에는 서쪽에 도갑사, 남쪽에 월남사와 무위사, 북쪽에 성풍사지가 있어 사자사지 목탑 복원은 월출산이 불교성지로서의 당당한 위용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문화 향상, 관광수요 증가 등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선 교수(순천대)가 '사자사지의 발굴성과'를, 김경표 교수(충북대)가 '고려시대 목탑의 구조형식 유형' 등을 발표하고 윤홍로, 박강철 위원(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복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고증'을 통해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복원"이지만 "제한된 문헌 정보와 터만으로 목탑 전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복원 아닌 창조에 가깝다"며 "추측으로 사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 지정

산림청 32개소 우량소나무림 특별관리 들어가

목재문화재 복원 시 필요한 목재 공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월 9일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우량 소나무림 32개소를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산림은 가슴 높이 지름(흉고직경)이 60cm 이상인 우량 소나무 1385그루와 통이 굵고 잔가지가 적은 최고급 소나무 20만여 그루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872ha(남산 크기 2.6배)의 국유림이다.

산림청 송경호 사무관(목재소득과)은 "산림청은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이후 7개월여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목재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대상목을 찾았다"며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재질이 우수해 문화재 복원용으로 적합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일명 금강소나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 지역을 문화재 복원용 대경재(大徑材) 생산을 위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병해충방제와 같은 산림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매년 10㎞의 임도를 확충하는 등 목재생산 관리기반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우량목에 대해서는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를 부착해 단목별 이력화 관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의 소요 대상목 요청 시 입목정보 산출과 생산, 공급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수목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의 특별관리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43억여 원씩 총 2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2005년 7월 문화재청과 문화재 복원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복궁 · 광화문 등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소나무 288그루를 3회에 걸쳐 공급했다.

김진성 기자

화엄학 대가 기무라 교수 '동아시아불교' 특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초청으로 강연

일본 화엄학의 대가 기무라키 요타카 교수(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가 한국을 찾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 HK사업단은 2월 9~10일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를 초청해 '동아시아불교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화엄학 중심의 중국불교 전문가인 기무라 교수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불교연구를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헌학적 · 사상사적 · 비교철학적 연구를 병행해 온 석학이다.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는 특강에서 "불교연구의 입문은 '문없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불교연구의 완성은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동아시아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어학적 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보교환과 학제간 연구를 통해 연구방법론 완성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엽 연구교수(금강대 HK사업단)는 "금강대가 진행중인 HK연구사업은 인도고전어 텍스트들이 중국에 들어와 어떤 변형과 전개를 보이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고민해 온 기무라 교수 강연이 HK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는 現 동경대 명예교수를 겸해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학장을 맡고 있으며, 2003~2008년에는 前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점검 학술대회 줄이어

2월 14일 한국사상사학회, 21일 신라사학회 등

1월 19일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이후 최대 발견으로 주목받은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발굴성과를 점검하는 학술대회가 줄이어 눈길을 끈다.

한국사상사학회(회장 최기영)는 2월 14일 서강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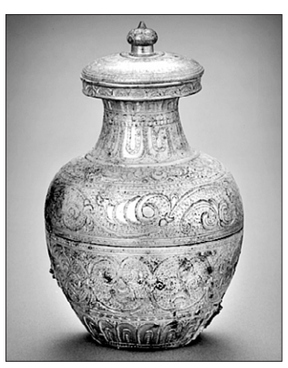
불교사상적 측면에서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접근한 행사에서는 김상현 교수(동국대), 길기태 박사(국가기록원), 조경철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김상현 교수는 현장설명회에서 언론에 공개한 사리봉안기 판독과 해석을 바로잡아 소개했다.

길기태, 조경철 박사는 사리봉안기를 근거로 미륵사지석탑이 조성되던 당시의 백제 불교사상에 대해 발표했다.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는 21일 개최될 제82회 정기학술대회 주제로 미륵사지를 택했다. 학회에는 한정호 연구원(동국대박물관)이 출토된 미륵사지 사리구와 인근의 왕궁리 5층석탑 사리구를 비교 발표할 예정이다.(장소 미정)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와 백제학회(회장 양기석)도 공동으로 3~4월 중에 대규모 학술대회를 치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062)850-5557

조동섭 기자



1월 19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개한 익산 미륵사지 금동사리구.

논문 모집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제14기 구산장학회 논문을 모집한다.

인도 · 중국 · 한국불교 등을 주제로 연구하는 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2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선정자는 2월말 개별 통지되며 석사과정 이상 100만원, 박사과정 이상 2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02)733-5311

조동섭 기자

불교미디어란?
진흥원 토론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9일 오후,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이 시대,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역대 대원상 수상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불교문화와 불교 미디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02)719-1855

조동섭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한국불교학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상금 1400만원의 '선리연구원 학술상'을 공모한다.

논문접수는 2월 26일까지며, 3월초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논문은 학술지 <선문화연구>에 게재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Human & Books Tel : 02-6327-3535~7 | E-mail : hbooks@empal.com



지혜로 풀어 쓴 불교판 이솝 우화

불교TV 오심 스님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백유경 해설!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백유경의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이다.
책 속의 어리석은 주인공들은 내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엄숙하고 진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 반해
이 경전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해학과 유머로써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혹시 나는 주인공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한 적은 없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나도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아반성(自我反省)을 하게 한다.
해학과 배꼽 잡는 위트가 살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출가자나 세속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웃는 가운데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값13,500원 | 4도 칼라 400쪽

일주문



용성 조사 수륙천도 방생법회 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구미 아도 모례원(주지 환희)이 2월 11일 봉행한 용성조사 수륙천도 방생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법문했다.



10 · 27 사무실 현판식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판식을 봉행한다.



26사 호국천마사 낙성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2월 7일 26사단 포병여단 호국천마사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전통불교문화원 초대 원장 임명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2월 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사무국장에는 우봉 스님(수덕사)이 임명됐다.



해사 졸업법회서 법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2월 18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에서 63기 졸업반 불자 생도들에게 무사임관을 격려하며, 입교를 축하하는 법문을 했다.



대구경실련 대표 선출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유가사 주지)은 2월 6일 대구경실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청계사 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월 17일 경내에서 의왕시, 의왕소방서로부터 청계사 소방차량을 무상 양여 받고, 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펼쳤다.



논산훈련소 육사 수계법회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월 2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진행한다.



제6회 달마오픈 스노보드 챔피언십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1월 30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제6회 '달마 오픈 스노보드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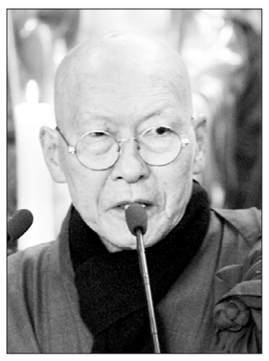


'음악, 법의학자 만나다' 테마연주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 강형진 단장은 2월 17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차이코프스키 편'을 개최한다.

"세상살이 나아질 때까지 불사 중지해야"

법정 스님 길상사서 동안거 해제 법문



2월 9일 겨우내 석달간 집중수행을 마치고 중생에 회향하는 동안거 해제의 날. 길상사 前 회주 법정(法頂 · 77 · 사진) 스님이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조)에서 해제 법문을 설했다.

복은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복 받을 행동, 복 받을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복 받을 만한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평소 시간의 덧없음을 관념적으로 알았고 또 건성으로 들었는데 지난 겨울 눈병을 앓으며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안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가지의 약은 1시간 간격으로 넣어야했습니다. 안약 넣는 시간을 챙기다 보니 1시간이 어찌나 빠르던지 모래를 손에 쥐었을 때 손사이로 모래가 빠져 나가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의 덧없음을 인식했으나 시간과 몸을 부딪혀보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또 쏜살같이 빠져나갑니다.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一夜 萬死萬生)'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밤과 하루 낮에 만 번 죽고 만 번 산다는 뜻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산다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하게 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한해의 시작부터 연쇄살인과 용산참사의 피로 얼룩진 새해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끔찍한 소식을 반복해서 들으면 의식 속에 어두운 잠재의식이 생깁니다.

오고 가는 것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도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또 말에서도 할 말과 할 필요 없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밝고 아름답고 착한 소식으로 착하고 복된 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지금 이곳(성북동 길상사)에 처음 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 신심 있는 불자들과 주지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로 지금의 번듯한 도량이 세워졌습니다.

흥청망청하는 절보다는 결손(缺損)한 절이 돼야 합니다. 지금 절은 넘치기 직전의 절이 돼 버렸습니다. 신도들이 말합니다. '절에 와서 짐 부리고 가려했는데 도리어 짐 가지고 갑니다'고 말이에요.

법회(法會)는 법다운 모임이 돼야 합니다. 법문을 듣고 법문의 내용을 차분히 음미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법회 끝에 하는 돈 이야기는 법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경제 위기로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살이가 나아질 때까지 불사는 중지돼야 합니다.

종에 금이 가도 종은 소리가 납니다. 종소리에 간절한 염원이 얼마나 담겼는가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는다면 금이 간 종에서도 그 염원은 울려퍼질 것입니다. 이상언 기자

봉암사 국제선센터 설립

문경시와 양해각서 체결한 함현 스님



"한국불교가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려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수행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희향이 있을까? 겨우내 은산철벽을 꿰뚫는 용맹정진을 쉬는 동안거 해제일에 한국불교에 큰 경사가 있었다.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사진)은 2월 10일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국제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함현 스님은 "외부시설이 들어서면 조계종 특별선원인 봉암사의 수행환경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고 말해, 무엇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봉암사의 수행환경이 지켜지게 된 것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주지직은 대중에 봉사하는 소임"이라는 스님은 봉암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수행환경 보존에 힘써왔다.

"봉암사 산문폐쇄 당시 봉암사 서쪽의 오봉정 안쪽에 스님들만의 수행공간을 마련하고, 봉암사는 대중에게 개방할 요량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지금은 봉암사 전체가 폐쇄됐지요. 이번 토지매입만 끝나면 당시의 계획이 요원하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함현 스님의 주지 임기는 4월이면 끝난다. 하지만 스님은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라며 후임 주지스님이 정해지는대로 모두 인수인계할 것이라 말했다. 주지 소임을 놓고 스님은 인도로 떠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소녀시대 윤아 동대 입학

원더걸스 선예, 가수 주, 배우 김수로도



소녀시대 윤아.



원더걸스 선예.



가수 Joo.



영화배우 김수로.

인기가요 '지(Gee)'와 '노바디(Nobody)'로 유명한 소녀시대의 윤아(본명 임윤아)와 원더걸스의 선예(본명 민선예) 등을 3월부터 동국대 캠퍼스에서 만나게 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인기그룹 소녀시대의 윤아와 원더걸스의 선예를 비롯해 가수 주(JOO, 본명 정민주)가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연기재능우수자 전형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월 9일에는 SBS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배우 김수로(본명 김상중)씨의 동국대 편 입학 합격소식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군종특별교구 계룡대 호국사 특별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2월 1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일면 스님은 육 · 해 · 공군 신도회장 임명장 수여와 장군 진급불자에게 지휘봉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논산 호국연무사서 방생법회



조계사(주지 세민) 1500여 사부대중은 2월 10일 동안거기도 회향을 맞아 충남 논산훈련소 내 호국연무사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코파이 1만여 개, 귤과 바나나 각각 4500개와 법당용 초가전달됐다. 조동섭 기자

동산불교대학 34기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안동일)이 2월 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2009학년도 상반기 34기 신입생 75명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무진장 학장스님과 안동일 이사장, 이종현 동산반야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광해 스님 취임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 광해 스님 취임법회가 2월 6일 청주 썬프라자에서 봉행됐다.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해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남상우 청주시장, 변재일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조계종 원우회 신년 첫 법회 봉행



조계종 원우회 위원장 김한일 행정관을 비롯한 원우회 회원 60여 명은 2월 11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초청해 신년 첫 법회를 봉행하고, 불자들에게 초심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金 仙 양 생 법

"정통 선도의 법만을 지속적으로 전수하여온 금선학회에서 **제9기 백일 축기 금선 양생법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깨달음은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육체는 즉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함으로써 얻습니다.

유불선(儒佛仙) 은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깊은 공부와 수련을 해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큰 깨달음을 얻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참선 수련을 해도 우리 육신의 오비(奧秘)와 정신세계의 상관을 알지 못하고는
법륜(法輪)을 얻기는 참으로 힘들고
수련(修鍊)으로 극복 못한 육체의 체내 잡념은 깊은 삼매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이 침잠하여 명경지수(明鏡止水)의 혜명을 여는 공부로 가야 합니다.

◆ **수행 과정 중 주화입마로 상기증(참선으로 인한 부작용), 몸의 불편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수련인 여러분들을 위한 성명쌍수(性命雙修)수련의 좋은 기회를 경험하여 보십시오.**

수련일정	**2009년 2월 20일 ~ 5월 31일까지** (100일간), **3월 1일 ~ 5월 31일까지** (90일간)
수련장소	세계금선학회 본원 (사당역11번출구 150M. 은혜빌딩 6층)
수련내용	1.금 선 공 법 : 금선 오행 기공, 금선 관법, 명상, 묘유주천, 소주천, 대주천 ,양신 ,구년면벽 2.금선 양생법 : 영보필법, 수도전지, 대성첩경, 혜명경 3.수진도 내경도
자 격	• 정통 선도 공부 수련을 원하시는 분. • 좀더 깊은 경지의 수행을 원하시는 수행자. • 진정한 건강을 원하시는 분. • 수행 과정 중 주화입마 상기**(참선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

** 금선학회 발전에 국내외 **지도자**로서 기여코자 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금단의 땅으로 구도여행을 떠납니다.

7月 3日 백두산출발 ⇨ 태산 ⇨ 무당산 ⇨ 무이산 ⇨ 종남산 ⇨ 화산 ⇨ 티벳라싸 ⇨ 수미산 ⇨ 구계왕국 ⇨ 네팔카투만두 ⇨ 포카라 ⇨ 룸비니 ⇨ 인도델리 ⇨ 아그라 ⇨ 라닥 ⇨ 다람살라 ⇨ 델리 ⇨ 서울 ⇨ 국내수련 천일을 수련합니다.

세 계 金 仙 학 회 ■ 교육문의 : 02)512-7057, 7233 / 010-2208-6608 www.kumsunacademy.org 금선학회.net

멋드러진 기와곡선 '정신과 손'의 합작품

법주사 대웅전 돈화문 등 200여 건물 기와 올려

"기와 잘 이어야 건물의 멋 수명 제대로 유지"



'번와장(翻瓦匠)'이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을 말한다. 이근복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 번와장이 됐다.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번와장인 이근복 선생을 만나러 가는 날은 참으로 추웠다. 두툼한 털옷을 입었건만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은 외투 속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근복 선생은 전수 교육장에서 기와 잇는 실습을 지도하고 있었다.

작업장 옆에 마련한 기와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궁궐을 수리하면서 버려진 기와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근복 선생은 덕수궁 대한문 · 경복궁 수정전 · 창덕궁 돈화문 · 서울 종묘(정전) 등 수십 차례나 궁전의 수리와 복원작업에 참여했다. 그때 버려지는 기와 일부를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와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기도 하다.

수키와 · 암키와 · 수막새 · 암막새를 비롯하여 악귀의 침입을 방지하려는 벽사의 상징인 귀면기와, 용마루의 양쪽 끝에 설치되는 치미(鴟尾) 등 궁궐을 축조하는데 사용되었던 다양한 기와들을 볼 수 있었다. 궁전이나 관아의 큰 건물에만 사용되었다는 잡상(雜像)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잡상은 내림마루나 귀마루 위에 한 줄로 앉히는데 신선 · 법승 · 기인 · 괴수 · 저팔계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이근복 선생이 번와장의 길을 걷게 된 인연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골에서 건축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혼자서 목수일 부터해서 기와 잇는 작업과 미장까지도 거뜬히 해내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 너머로 집짓는 일을 보아왔었고, 성장하고서는 아버지 밑에서 집짓는 일을 배웠다.

"아버지로부터 집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작업을 골고루 배웠는데, 기와를 잇는 작업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어요. 기와만 잘 이으면 비가 새지 않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썩을 염려가 없으며, 썩지 않는다면 천년은 거뜬히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로웠지요."

콘크리트 집도 아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천년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해 보여 기와 잇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건축에 관한 잡다한 일들을 배웠지만 본격적으로 번와 작업을 배운 것은 1978년부터이다. 서울에서 고(故) 기선길씨를 비롯하여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이근복 선생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흠뻑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스승님은 자신의 기술을 온전히 전수해 주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면 남보다 빨리 점심을 먹고는 작업 중인 지붕으로 올라갔다. 작업하다가 둔 일을 혼자서 이리저리 궁리해가며 실습 삼아 해보았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는 행여 스승이 알까 싶어 작업한 것을 다시 뜯고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렇게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전통 기와 잇는 공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쳐나갔다. 이근복 선생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번와 기술을 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기에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때는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잇기 위해 잠시 포장마차를 한 적도 있었으며, 힘든 작업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적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한 번도 전통문화를 전수해나가는 이 일을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전통 번와 기법의 보존을 위하여 사재(私財)로 전수교육장을 따로 마련하여 후학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여념이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전수해 주자는 것이 이근복 선생의 교육철학이다.

사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근복 선생의 손을 거쳐 간 건물은 200여 채가 넘는다. 경복궁 수정전 · 창덕궁 돈화문 · 안동 봉정사 극락전 · 보은 법주사 대웅전 · 프랑스 고암 이응로 화백 자택 등을 보수공사 했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문 · 경복궁 흥례문을 복원했으며, 진천 보탑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찰들을 신축하였다. 1997년에 서울 숭례문을 보수했는데, 2008년 화재로 전소되어 버린 것이 두고두고 가슴 아프단다.

"저는 후학들에게 문화재가 소중하다는 정신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와를 잘못 이으면 문화재가 훼손될 가망성이 많기에 정신교육부터 시켜야지요. 그래서 문하생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날림공사를 한다면 국가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지만, 자신이 작업한 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니 개인으로 봐서도 명예가 실추되는 등 손해가 크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당부한단다.

우리 지붕의 용마루나 처마 곡선은 세계적이다. 그 아름다운 곡선은 오랜 숙련과 기술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지붕은 서까래 걸고 개판 덮으면서 목수의 손을 떠나 번와공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지붕마루는 집의 윤곽선을 이룬다. 집의 모습을 좌우하는 한 부분이 되며 멀리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붕마루는 평면적으로는 직선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곡선이다. 지붕마루는 목수가 어느 정도 마루곡선을 결정지었다 해도 그 곡률(曲律)은 번와공의 솜씨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단다. 그러니 기와를 이는 작업 또한 목수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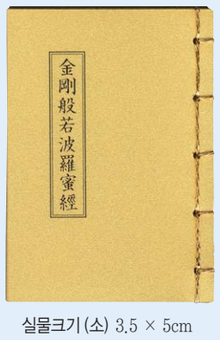
여름철 뙤약볕에 달았던 기와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도 터지지 않고, 겨울 추위에도 동파되지 않는 좋은 기와가 첫 번째 조건이며, 지붕이 오래 가느냐 아니냐는 느리개(통나무를 반쪽으로 타갠 것)와 적심(느리개 위로 통나무를 차곡차곡 채우는데, 그런 통나무를 일컫는다)이 좌우한다. 번와공은 적심을 재고 그 사이에 진흙을 가져다 붓고는 그 흙을 밟으면서 기와 잇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보통 힘 드는 것이 아니란다. 발은 자꾸 미끄러지지 허리는 아프지, 땀은 눈으로 코로 들어가고..... 정말로 기와를 잇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었다고 하니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나 요즈음 기와는 유리알처럼 너무 매끄러워 작업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했다.

재래기와는 태토에 약간의 모래를 섞어서 만들었으며, 두꺼비 가마에서 나무로 불을 태워 구웠기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끼가 끼고 더욱 멋스러워지는데, 현대 기와는 너무 번쩍거리고 세월의 때라 할 수 있는 이끼가 자라지 않기에 옛날처럼 멋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지붕 잇는 것에 대한 작업을 직접 듣고 보고 나니 손수 집 한 채를 지은 것처럼 뿌듯하다. 사라져가는 전통 번와 기술을 전승하는데 거의 반평생을 바쳐 온 이근복 선생이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만 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연화사 주지 정법 스님

"어린이 곁에서 부처님법 알려요"

"누가 가르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우리절에 찾아와 뛰어놀고 부처님오신날에는 장기를 뽐냅니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과 스님이 좋고, 부처님법이 좋아지니 절에 찾아오는 날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제 어린이 포교법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 고개 위에 자리한 연화사는 작지만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절 아랫동네 '푸른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으로, 주지 정법 스님(사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기도 하다. 3년 전 연화사 신도의 딸이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미술교사로 자원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푸른 공부방'을 처음 찾게 됐다. 스님은 "우리 절이 있는 만덕은 부산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 어려운 가정이 많은 편인데, 초 · 중 · 고교생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저녁도 함께 먹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힘이지만 꼭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스님은 매월 쌀 1말과 여러 가지 부식거리, 20만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푸른 공부방'은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기 힘든 학생들에게 무료 학습 지도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부방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 봉사자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정법 스님.

정법 스님은 작지만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절 아랫동네 '푸른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으로, 주지 정법 스님(사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기도 하다. 3년 전 연화사 신도의 딸이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미술교사로 자원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푸른 공부방'을 처음 찾게 됐다. 스님은 "우리 절이 있는 만덕은 부산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 어려운 가정이 많은 편인데, 초 · 중 · 고교생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저녁도 함께 먹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힘이지만 꼭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스님은 매월 쌀 1말과 여러 가지 부식거리, 20만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푸른 공부방'은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기 힘든 학생들에게 무료 학습 지도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부방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 봉사자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정법 스님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서인지 언제부턴가 이곳 공부방 학생들이 연화사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됐다. 어느 누구도 절에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 것. 이번 설날에도 어김없이 스님을 찾아와 세배를 했다. 부처님오신날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와서 절일을 돕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 공부방에서 배운 악기연주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스님은 "아이들이 법회를 보고 교리공부도 하면 좋겠지만, 공부방 후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님이 고맙고, 불교가 좋고, 또 절에 놀러가고 싶다는 신심이 절로 생겨, 이제는 모두 불자가 됐으니 어린이 공부방 후원이야말로 새로운 포교방법이 아니냐"며 기뻐했다.

사실 스님은 오래 전부터 어린이와 중 · 고등학생 법회를 지도해온 경력 20여 년의 어린이포교 베테랑스님이다. 19세 때 어린이법회 지도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조계사 중 · 고등학생회를 다년간 지도하기도 했다.

3월 연화사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새로운 도량을 열고, 시민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도심포교를 시작한다. 정법 스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린이포교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어린이, 중 · 고등부 정기법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연화사 새 도량은 법당도 마당도 넓어서 아이들이 뛰놀고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놀토마다 절에서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어린이와 중 · 고등부 법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처님법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죠."

정법 스님은 포교는 베풂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모두 부처님법으로 행복하니, 최고의 포교인 셈이다. (051) 504-5522 박지원 기자

"재가불자여 간화선 하라"

벽송선원 3월 15~22일 재가불자 벽송선회 개최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 벽송사에서 재가불자만을 위한 선회가 또 한번 열린다.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은 3월 15~22일 8일간 제2회 재가불자 벽송선회를 개최한다. 벽송선회는 간화선 수행의 이론과 실참 향상과정으로 이제껏 출가수행자를 대상으로만 열렸으나, 재가불자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처음 열린 후 이번이 2번째다. 첫 재가불자 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명의 우바새, 우바이가 모여 월암 스님과 함께 간화선을 수행하고 낙오자 없이 전원 회향했다.


월암 스님.

월암 스님은 "최근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곳곳에 시민선방이 들어서고 안거에 들어가는 재가자가 많기 때문에 제1회 재가불자 선회를 열 당시 참선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참가자를 맞았다. 하지만 대부분 선에 관한 정견이나 이론의 토대 없이 화두 하나 받아 안거에 들어가니까, 애를 쓰기는 쓰지만 바른 길을 몰라 많이 헤매고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초 연 1~2회를 예상했지만 재가불자 선회가 시급함을 인지해 올해에는 계절마다 한번씩 4회에 걸친 선회를 열어 어디서도 쉽게 물을 수도 배울 수도 없었던 간화선에 대한 정견 정립과 실참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2번째 벽송선회의 일정 역시 출가수행자 선회와 같다. 새벽과 저녁은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 낮 동안은 '부처님의 말씀'인 교(敎)에 빠져든다. 모든 선회의 공통 교재는 <간화정로- 간화선 수행의 바른 길>로 저자 월암 스님이 직접 '간화선의 역사' '정견의 확립' '돈오견성' '간화선 향상일로' '화두와 실참' '간화선과 일상생활' '간화선 수행의 요체' '간화선과 재가자의 간화수행' '간화선과 중생회향' '선과 노동' '동정일여의 수행' '한국의 선사상' 등을 주제로 10여 차례에 걸쳐 강의하게 된다. 방부는 5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회비는 20만원이다. (055) 962-566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예서건설 천만원 후원

평양 햇빛발전소 건립에 사용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여 스님이 예서건설 하종곤 대표이사(왼쪽)로부터 햇빛발전소 건립후원금 1000만원을 받고 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정여)은 2월 9일 오후 2시 범어사 주지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고 예서건설(대표이사 하종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000만원으로 현재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 중인 '평양 우리 민족 햇빛발전소'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햇빛발전소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북한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보호하고, 원자력발전소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실효성이 높은 지원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서건설 하종곤 대표이사는 기금 전달 취지문을 통해 "이번 사업은 정여 스님의 지도 아래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이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햇빛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현재 경색된 남북 당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여 스님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 민족이고 한식구임을 인식하고, 북이 굶고 있다면 더 이상 굶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여 스님 및 실무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3월 18일 중국 심양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햇빛발전소의 설립 장소 및 착공 일정 등에 관한 본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현재 햇빛발전소 건립 장소로 북한 낙랑구역 내 영 · 유아, 어린이 계층 취약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051)442-6321 박지원 기자

"내 발원은 떠나오던 날 이미 성취"

보광 스님 십보일배로 부산~태백 정암사 도착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을 10보1배로 순례 중인 보광 스님이 두 번째 적멸보궁 태백 정암사에 도착했다. 1월 1일 부산 불광사를 떠난 지 41일 만인 2월 11일 보광 스님의 은사인 인산 스님, 정진선우회 정도 스님, 현담 스님 및 불광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일주문부터 석가모니불 정근에 맞춰 3보1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수마노탑을 참배했다. 이틀마다 한 켤레씩 장갑을 갈아 끼고, 무릎을 덧댄 두터운 승복바지를 여러 벌 갈아입으며, 현재 총 750km 중 절반에 가까운 347km를 왔다.

보광 스님은 "두 번째 보궁에 도착하면 기쁨의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올라와보니 기쁨도 슬픔도 없이 그저 편안해 보이는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니 여기가 불국토인 것 같다"며 "내 발원은 떠나오던 날 이미 성취됐으니 남은 3곳의 적멸보궁을 향하는 기도에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왼쪽)과 하루 24시간 스님 곁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이수부 거사(법명 금곡).

향후 2월 18일 세 번째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에 도착, 3월 2일 오대산 월정사, 3월 17일 백담사를 거쳐 18일 마지막 적멸보궁인 설악산 봉정암에 도착할 예정이다. (051) 809-1420 박지원 기자

낙동노인요양원 개원

진각복지재단 운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은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낙동노인요양원 개원식을 열었다. 기존 복지관 내 마련된 낙동노인요양원은 입소보호와 요양보호사 파견서비스를 병행하게 된다. 개원식 후 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로 지역 내 어르신 25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벌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낙동노인요양원 개원식이 2월 10일 열렸다.

이날 개원식은 강인길 강서구청장, 김동일 강서구의회의장 등 지역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지원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승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4~7	마일운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이기봉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이기봉	재학생/졸업생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한활안	30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4~7	김영렬	30

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7	마일운	30
범패실습 I	영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산재의례절차 II	상주권공과정	금	오후4~7	이기봉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1~7	한해사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화	오후1~4	한활안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4~7	김영렬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약간명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2009년 1월 19일 ~ 2월 28일

원서교부및인터넷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2급 정표고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2008년 본교주관 해외공연 : 일본오사카한국문화원 초청 시연, 중국하북성 백림선사 영산재 시연, 통영 임란 호국영령천도 영산대재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 FAX 02)392-3239 /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군산 동국사 문화재 해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불교계 반발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산 지역 문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 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 · 부동산은 지정 · 등록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건축양식인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록문화재 제64호)을 비롯한 전체 등록문화재 422건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화재 48건(수탈 18건, 일본양식 30건)의 해제가 불가피 하게 된다.

장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일제건축물에 투자됨을 비판해 왔다"며 "다만 기존 지정 · 등록문화재 가운데 식민통치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역사 · 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사적 보존자료'로 다시 지정하게 하는 등 명칭을 변경하고자 새 항목을 추가한 것 뿐이지 이미 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적 지위나 국고지원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걸 스님(군산 동국사 총무, 국제 포교사)은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청 태조의 크신 공덕이라고 칭송한 '삼전도비'도 사적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며 장 의원의 발의에 반발했다. 스님은 "부끄러운 역사라는 이유로 잔재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해서 다시는 이 땅위에 슬픈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웅 원장(군산문화원)도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모두 일본 건축물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며 "군산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복합적인 근대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일 염원 담은 돼지 북으로

호남6대본사협·우리겨레운동본부 1억 기금 마련

1998년 6월 16일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과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해빙무드를 맞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차례로 성사됐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엔 불자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복돼지가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호남6대본사협의회(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금산사 선운사)와 (사)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현지, 이하 우리겨레운동본부)는 2월 6일 광주불교사암연합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까지 1억원 기금을 마련해 통일복돼지를 구입한 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겨레의 미래에 복(福)이 될 통일복돼지 보내기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호남지역 교구본사가 하나가 돼 모돈 50두, 웅돈 10두, 2개월분 사료를 구입해 인천항을 통해 평양 사동구역 장천리에 제공될 예정이다.



호남6대본사협의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월 6일 통일복돼지 보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일복돼지 제공을 위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2007년부터 북한에 양돈을 위한 '북녘 통일돼지농장'을 건설해 연간 5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도 완공해둔 상태다.

우리겨레운동본부측은 "통일복돼지 전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2월중 평양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4월까지 호남6대교구의 각 말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4월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통일돼지농장에 전달을 마치고, 5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처님 자비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뜻 깊은 단초를 마련하고자 통일복돼지 보내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민족이 어렵다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작은 힘이나마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불자들의 마음속엔 남과 북을 가리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고, 호남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온 정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지 출토 유물 선보여

19일까지 전북도 의회 로비서 사진전

백제금동대향로에 이어 백제 불교예술의 백미를 보여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이 개최됐다.

전라북도는 2월 10~19일 전라북도 의회 1층 현관로비에서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등의 사진전을 열고 있다.

도내 국보급 유물과 관련한 범도민적 관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는 금제사리호 등 유물 출토현황 및 사리장엄 수습과정, 수습유물 목록과 함께 유물별로 설명을 곁들여 전시 중이다. 또 익산유물전시관에서도 사리장엄 사진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전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도 본청 1층 현관 로비 및 기획전시실로 옮겨 계속해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윤여영 주무관은 "최근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 등 국보급 유물 500여 점이 발굴된 익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 각지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지역 등의 여행사와 기관들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6~9일에는 서울 용산역에서는 'KTX와 함께 하는 주옥같은 익산관광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는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 왕궁리오층석탑 등 문화재를 비롯해 보석박물관, 국화축제 등 익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30여 점의 사진이 해설과 함께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윷놀이 잔치

무각사 대보름 행사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2월 9일(음 1. 15) 정월 보름을 맞아 지역 노인 500여 명을 초청해 오곡밥을 대접하고 윷놀이 잔치를 벌였다.

오곡밥 식사후 마을별 30여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된 윷놀이 잔치에는 등수에 따라 경로당회식비 30만원과 쌀 100㎏을 비롯해 다양한 상금과 상품이 전달됐다.

청학 스님은 인사말에서 "옛부터 정월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민족의 명절이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음으로 어른들께서 즐기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오달면 할아버지(75 · 서구 치평동 노인연합회장)는 "이 지역 어른들이 많이 참가하셨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사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명나눔 광주전남

2009 정기총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2월 12일 신양파크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 사업 및 결산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로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과 박종석씨를, 감사에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광주생명나눔 후원회 후원기금 전달식과 서현창 환우에 대한 치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2008년도 사업결산에서 광주생명나눔은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460명을 모집하고 영호남헌혈은행 운동을 통해 헌혈증서 5337매를 모집하여 1694매를 환우에게 지원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을 퇴사하는 윤예중 사무국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각사 청년회

회장단 이·취임

광주도심의 포교도량 원각사청년회(회장 범정택)는 2월 7일 대웅전에서 제33 · 34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은 격려사에서 "청년회에 맞는 불교신행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가장 큰 포교수단이다"라며, "단체뿐아니라 회원 개인들이 마음공부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한 범정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불교의 희망은 청년불자'라는 좌표를 지렛대로 삼아, 굳건한 신앙심과 실천력으로 정토세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각사 청년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정기법회와 매주 목요일 신입회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 사자암 가족법회장 이준호 거사

"불법 실천 못한면 한낱 지식일뿐…"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자암. 최근 국보급 금제 사리구가 발견된 미륵사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사자암 돌계단에 걸터앉아 이준호 가족법회 회장을 찾았다.

2005년 사자암 일요가족법회 창립과 함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호 거사(사진)는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오르던 사자암을 잊지 못한다.



"사자암에 오르면 백제불교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는 미륵사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많은 불교문화재가 쏟아져 나온 왕궁리 유적이 손을 내밀면 닿을 듯 바로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지요. 제 신행의 원동력은 사자암에서 펼쳐지는 전경입니다."

이 거사는 옛 백제불교의 영화가 되살아나기를 고대하는 희망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준호 거사는 군 제대와 함께 해양경찰에 근무했다. 업무 특성상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순시선이라도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5일에나 한번 육지에 발을 디딜 환경에서도 군산불교청년회 활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지역불교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1998년 포교사고시에 합격한 뒤 이 거사의 불교에 대한 열정은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런 그를 두고 해양경찰 동료들은 '움직이는 법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름대로 정리된 불교문서를 나눠주고 전경들에게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정신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동료들이 그렇게 불러주더군요."

이준호 거사의 포교열정은 사자암 가족법회로 이어졌다. 미륵산 중턱에 있는 사자암은 40분정도 산을 올라야하는 수고로움 때문에 가족법회에 동참하는 가족들이 많지 않았다. 이준호 거사는 불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법회에 적극 동참을 권유하자 법회 동참자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자암 가족법회에는 매주 100여 가족이 동참하고 있다. 이 거사는 지금도 법회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로 동참을 독려한다. 회원 중에는 이준호 거사의 정성에 탄복해 법회에 나온다는 가족이 있을 정도다.

이 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날이면 암자 뒤편의 작은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사자암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미륵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행의 힘이 있어야 포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시민선방에도 빠짐없이 동참 중이다.

이준호 거사의 신행활동에는 수행과 포교에 이어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실천하기 위해 틈틈이 사찰이나 요양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쑥뜸봉사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 거사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근무지 이동이 잦지만 항상 인근 사찰을 찾아 궂은 일을 해결하고 법회 때는 쑥뜸 봉사를 실천해왔다.

이준호 거사는 "사자암에 오를 때면 발밑으로 펼쳐진 미륵사지, 백제 왕궁 유적이 복원돼 익산지역 불교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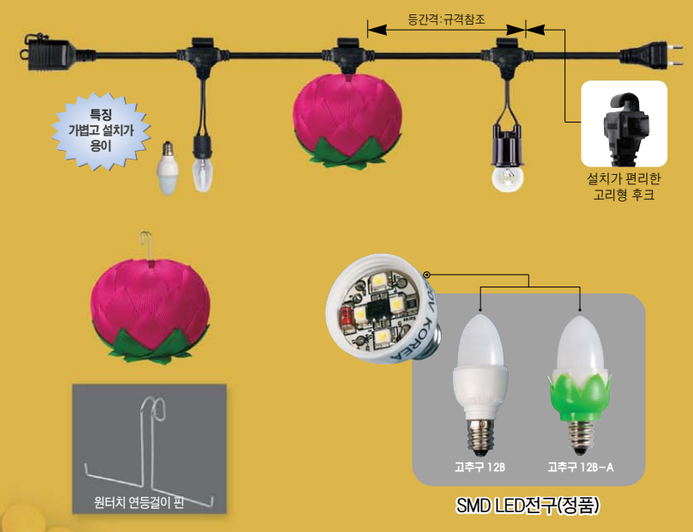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천태종 재가불자 사찰발전금 1억 쾌척

천병도 불자, 2월 3일 진주 월경사에 전달



천병도 불자를 대신해 월경사 명구 스님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손종진씨가 사부대중에게 인사하고있다.

세계적인 경제 한파 속에서 한 재가불자가 천태종 진주 월경사(주지 명구)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쾌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병도 불자(액세서리 업체 운영)는 2월 3일 진주 월경사 명구 스님 주지취임 법회에서 월경사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천씨가 개인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해 발전기금은 지인을 통해 전달됐다.

기금을 전달 받은 월경사 주지 명구 스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시해주는 신도가 있어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며 "이번 발전기금은 사찰 음향시설 확충 및 유치원 시설 보수 등 대중 수행 환경 개선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마음을 비우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며 "불자들이 타인에게 더욱 인자해지고 자신의 마음을 깨치기 위해 노력하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명구 스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기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천병도씨는 이번 발전 기금 외에도 천안 만수사, 창원 원흥사, 금강대학교 등의 불사 시 수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천병도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선행을 전하려 했으나, 본인이 사양의사를 밝혀 이뤄지지 않았다. 월경사의 한 관계자는 "주지스님께서 천병도 불자가 자신의 보시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전해왔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천태종 각 교육 기관 졸업·수료식

금강대 학위수여식 및 각 지역 금강불교대 수료식 봉행

인재교육불사를 2009년 종단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밝힌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의 교육기관들이 졸업 · 수료식을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배출한다.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2월 27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제3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불교 · 복지학부 5명과 영어통역 및 통상통역학 전공 12명 등 30명이 학사학위를 받는다. 2003년 개교한 금강대는 2007년 첫 졸업생부터 미국 조지타운대, 일본 와세다대 등 해외 명문대 학원에 진학하고, 취업률 100%를 기록하는 등 불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큰 성과를 내왔다. 현재는 46명의 졸업생들이 사회 각 계각층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금강대 교학처 박훈성 팀장(학생팀)은 "불교학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심층적인 불교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며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각 기업체와 정부기관에 취업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27일 열린 금강대학교 제2회 학위 수여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불교인재 양성에 힘써 온 각 지역 금강불교대학(이하 금불대)도 새로운 수료생을 배출한다.

서울 관문사 금불대(학장 영제)는 2월 21일 오후 7시 옥불보전에서 '2008학년도 수료식'을 봉행한다. 관문사는 이번 수료식을 통해 불교학과 제26기 초급과정 수료생 142명과 제25기 중급과정 수료생 98명, 제15기 교법사과 수료생 54명 등 29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다. 1982년 설립된 서울금불대는 그동안 꾸준한 교육을 통해 불교학과 수료생 2974명, 교법사과 수료생 561명을 배출해 서울지역 불교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수료생들은 사찰 봉사활동과 다양한 포교활동 등을 통해 불법 홍포에 앞장 서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됐다. 서울금불대 총동문회 김용국 총무부장은 "많은 동문들이 10여 년 전부터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육군 9사단 등에서 군포교 활동을 해왔다"며 "2008년부터는 총동문회 내 '군포교 포교단'을 조직해 보다 체계적인 장병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호스피스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대성사 금불대(학장 윤수현)도 2월 28일 수료식을 봉행하고, 불교학 보통과정 73명, 고급과정 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다.

2004년 문을 열어 총 645명의 수료생(보통과정 382명, 고급과정 263명)을 배출한 대구 금불대는 엄격한 출석제도로 유명하다. 윤수현 학장은 "교육 과정 차별화와 재가불자들의 성실한 교리 공부를 위해 출석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과정 덕분에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배운 내용을 회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학장은 또 "<법화경>을 3년 동안 수학하는 과정으로 2008년 개설한 전문과정도 재가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사는 현재 스님 2명과 금불대를 수료한 재가불자들의 봉사활동(총무 · 재무 · 사업 · 계획 등의 위원)으로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 정광사 금불대가 2월 19일, 부산 삼광사 금불대가 2월 20일, 춘천 삼운사 금불대가 2월 25일 수료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학 신입생 모집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 홍파)이 2월 28일까지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승가학과 60명(승려 · 법사 · 행자 대상, 2년 과정), 불교학과 120명(일반불자 대상, 6개월 과정)이며, 각 과정 모두 인터넷으로만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반도 모집한다.

서울불교문화대학은 올 한해 불교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원전강독에 집중할 전망이다.

매주 목 · 금요일 주2회 수업하는 승가학과는 중국불교사, 유식 · 중관학, 법화경 · 금강경 강화, 화엄 사상을 비롯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불교상담론 등의 특강이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수업하는 불교학과에서는 근본불교 · 불교신행강좌 · 불교문화와 사회 등을 강의한다.

학장인 홍파 스님이 직접 <법화경>을 강의하며 운산 스님, 혜담 스님, 종일 스님, 여여 스님과 신규탁 교수(연세대)등 국내 유수강사진들로 구성됐다. 그밖에도 경장 · 율장 ·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을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9학년도 신입생에게는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승가학과 졸업생은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시 추천한다. 입학일은 3월 5일이다. (02)763-3001 이상언 기자

태고종 승려 연수교육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종단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장묘문화 및 사찰재정 확보를 위한 불사 추진 방법 △사찰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을 시행하는 방법 △각종 사찰관련 법규 및 세무 등을 교육한다. 태고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사찰운영과 관계된 부분 등 스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2월 23일 종덕 · 대덕법계, 24일 중덕법계, 26일 선덕 · 미법계자 등 법계별로 실시되며 오전 10시 30분 입재해 오후 4시 30분 수료한다. (02)739-3450 김진성 기자

"진각종, 1억 예산으로 인천공항에 전통등 전시"

종단협 2009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2009년도 제1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이하 종단협) 이사회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총원 33명중 25명의 이사스님이 참석하고, 5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 회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기 2553년 한 해 동안 종답협 활성화를 통해 불교포교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건 △대한불교법화종 재가입의 건 △기타 안건 등을 결의했다.

종단협은 먼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시 협회명으로 6000만원을 봉축위원회에 전달하고, 2008년 종단협에서 진행했던 '청계천 등달기사업'은 조계종 도선사(주지 혜자)에서 주관하되 불교의 사회적 실천인 자비나눔 행사를 결합한 모습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봉축행사는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에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통등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그동안 재가입 의사를 밝혀왔던 법화종(총무원장 혜륜) 재가입 건에 대해서는 "법화종이 미체납된 회비 및 사업비를 납부하고, 향후 종단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만큼 재가입을 승인하겠다"고 의결했다.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2009년도 제1차종단협이사회.

한편, 종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보고와 주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7억9122만1354원과 특별회계 2억8700만9860원에 대한 결산을 승인했다. 김진성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국문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소중한 자료,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이 글에 대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바른북스

佛 불광승복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달 가사불사 주문 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단은 제외
(1)가사불사
(2)장삼불사
(3)승복일체
(4)손 누 비
(5)모시께끼
(6)수 련 복
(7)소품일체
[향,모자,가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1-29 103호 한빛아크빌
02)383-3681 / 011-879-3681 윤병대 합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9996-7700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③

큰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 덮는다

[원문]
청허영 거사암(淸虛影 居士龕)
유각무수 무비불사(有覺無修 無非佛事)
백화청송 황화취죽(白花靑松 黃花翠竹)
공산무인 수읍화개(空山無人 水泣花開)
–신흥사 보제루

[번역]
맑고 깨끗한 그림자, 앉아 있는 사람 덮으니
깨달음 있어도 닦지 않으면 불사가 아니로다.
눈 덮인 흰 봉우리에 푸른 소나무, 노란 꽃 가운데 솟은 푸른 대나무
텅 빈 산에는 인적 없는데 꽃은 피고 물은 울면서 흘러가네.

[선해(禪解)]
내가 승가(僧家)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방하착(放下着) 즉 '놓아 버려라'이다. 수행자가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물론, 성불하기 힘들다. 바로 방하착을 실천하는 순간, 승가의 일원이 되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미승 때 나는 좀처럼 출가와 세속의 경계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그런 나를 엄하게 꾸짖은 분이 계셨는데 바로 나의 은사이셨던 금오(金烏) 스님이다.

출가자는 평생 스승의 도(道)의 그림자를 밟고 다녀야만 한다. 예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승가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를 뛰어넘어야 비로소 '깨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금오 스님의 그림자는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평생, 계율을 중시하고 본분을 잃지 않으셨던 금오 스님은 내게 있어 맑고 깨끗한 스승의 그림자를 항상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 스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부단하게 수행을 해야만 했다.

그런 우리 스님이 열반을 하신지 벌써 마흔 한해가 흘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는 아직도 누각처럼 우뚝 서 있어 나의 그림자를 온통 덮는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수행이 금오 스님을 아직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칠십 평생 우리 스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설악산 신흥사 보제루 누각(樓閣)에 새겨진 주련은 마치 한 편의 선시(禪詩)처럼 아름답고 그 속에 남긴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은 것 같다.

'맑고 깨끗한 그림자/ 앉아 있는 사람 덮으니.'

누각은 원래부터 한 폭의 그림이다. 특히 해가 높이 지상에 뜰 때인 늦은 오후에는 그 그림자가 누각 안에 든 사물의 그림자를 덮는다. 이쯤이면 산승들의 마음은 어느 새 고요 속으로 잠기게 되고, 이윽고 법고(法鼓)소리가 적(寂)을 깨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절은 다시 무념(無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절의 법당을 수행터라고 한다면 누각은 쉼터에 가깝다. 하지만 스님들에게 있어 쉼은 휴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말하자면 누각에 앉아 쉬는 것도 수행의 연속인 것이다. '깨달음 있어도 닦지 않으면 불사(佛事)가 아니다'라는 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대개 누각은 문과 벽이 없이 높이 지어진 집을 말하는 데 신흥사의 누각은 숭유억불 시대인 조선시대 때 세워졌다. 당시 유생들은 이 신흥사에 자주 들려 유흥을 즐겼다고 하는데 유생들이 갓을 쓰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절의 누각 보다 낮게 다락을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각의 형태는 사천왕문을 지나 극락보전에 이르기 전에 서 있는 장방형이다. 특히 위층에는 다락공간으로, 아래층은 본전에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장이 상당히 낮아 웬만한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절에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흥사의 낮은 누각의 주련 속에는 '하심(下心)'의 궁극적인 진리가 안에 숨겨져 있다. 말하자면 '깨달음이 있어도 닦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다. 여기에 새겨진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필체로 전해지고 있다.

'눈 덮인 흰 봉우리에 푸른 소나무, 노란 꽃 가운데 솟은 푸른 대나무' 같이 깨달음이란 눈 덮인 한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의 절개처럼 우뚝 서 있고, 노란 꽃 가운데서도 대나무처럼 곧게 서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텅 빈 산에는 인적 없는데 꽃은 피고 물은 울면서 흘러가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읍(泣)에 있다. 인적 없는 곳에 꽃은 피는 데 물은 울면서 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바로 수행의 본분을 모르는 사람에겐 안으로 그저 괴로움만 쌓이게 될 뿐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찰 주련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선 생각해야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선(禪)'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선은 언어를 부정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언어에 따르는 사고작용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그 이면에는 바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데에 있다. 즉, 주련의 내용처럼 인적 없고 고요하지만 그렇게 꽃은 피고 물은 흘러가지만 울고 있다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마치 깨달음이란 아주 크고 넓다고 생각하기 쉽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같은 생각 때문이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요, 선 또한 그런 게 아니며 수행 또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모든 게 자신의 마음속에 든 탐진치 삼독을 능히 놓지 못한 까닭임을 알아야 한다.

중생이란 본래부터 부처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물과 얼음과 같다.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듯 중생에게서 부처를 찾아야 하고 내 안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 주련에 새겨진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누각 속으로 들어온 그림자가 사람의 그림자를 덮어 버리듯 깨달음도 스스로 닦지 않으면 성불이란 불사를 결코 이룰 수가 없다. 큰 나무 밑에 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듯이 깨달음이란 이와 같다. 지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는 서서 있고 봄이면 화사하게 피는 노란 꽃들 사이 속에서도 곧은 대나무는 빛이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꽃이 피고 물이 흐르듯 세월은 그냥 흘러가나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인생은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기회란 인생에서 단 한번만 만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 다시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주련의 글귀처럼 이때를 놓치게 되면 큰 그림자에 자신의 그림자가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보림해야만 스스로 읍(泣)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출가자는 스승 그림자 뛰어넘어야 비로소 깨쳐
주련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 세상 바라봐야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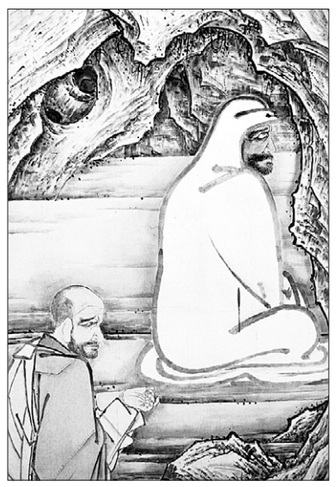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

[원문]
從無始曠大劫以來 乃至施爲運動 一切時中 一切處所 皆是汝本心 皆是汝本佛 卽心是佛 亦復如是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無有是處.

아득히 먼 옛날부터 분별하고 움직이던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며 그대 속의 본래 부처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니라.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해설]
달마 스님의 법문은 불교의 요지입니다. 연기법이나 인과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런 것은 해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부에서는 진리의 실상(實相)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체가 마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주의 실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달마 대사 혜가 단비도(斷臂圖)' (동경박물관 소장).

<천수경>에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南無七俱胝 佛母 大准提菩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귀의, '칠구'라는 말은 칠억을 의미하므로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이란 칠억의 부처님 어머니가 대준제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대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므로 관세음보살님이 칠억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반야(般若)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실상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다는 그 자리를 반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다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인 것이죠. 즉, 관세음보살이 곧 반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야가 곧 관세음보살님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반야심경>의 설법은 반야를 의지해서 부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는 곧 관세음보살이라 할 수도 있고, 지장보살님이라 할 수도 있고, 석가모니부처님, 혹은 아미타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그 자리에 대해서는 반야라 해도 맞지 않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맞지 않지만, 부득이 방편상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반야'라는 그 자리는 어떤 문자나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 반야의 자리를 달마 스님께서는 억지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불교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분별하고 움직이던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며, 그대 속의 부처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본래의 마음, 즉 본심(本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본래 마음자리(心地)에서 보면 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라 하신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우주와 하나의 자리로 돼 있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 속의 본래 부처'는 본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이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견성(見性)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성 후 (언제 어디서나 본래의 마음자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한다면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것은 이 우주를 하나로 본 우주의 실상진여 자리를 말합니다. 반야니, 진여니, 진공이니, 관세음보살이니, 하는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 본래의 실상 자리는 그 어떤 문자나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물질이 아니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도(中道)라 합니다. 우주의 실상자리에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하나인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과 내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내 마음은 나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인 본래 실상자리인 마음자리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3월 2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죽음의 관문 넘지 않으면 살 길도 없다



지허 스님
(선암사 태고총림 부방장)

중학생 때 철학서적 탐독하다 선암사로 출가
'만법귀일…' 화두 정진, 경봉 구산스님 등 친견
태고선원 선농일치로 운영…"신농경사회 돼야"

"요즘 신문사는 어때? 거기도 힘들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곳이 있어야지. 그래도 신문사가 잘 돼야 하는데 말이야. 중요하거든.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문이 크게 북을 쳐서 정신을 이끌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사회도 문화도 바로 갈 수 있잖아."

기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는 첫인사 같지는 않았다. 햇살이 사각(斜角)으로 들어오는 금둔사 태고선원 선방에서 인사를 올리자 정론직필도 양심적 지식인도 그리 많지 않은 세상을 염려하는 지허(指墟 · 69) 스님.

"이 차 향기 한 번 맡아 봐. 내가 만든 건데,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덖은 거야."

차(茶)에도 일가를 이룬 지허 스님은 선암사에 아홉 채의 전각으로 구성된 대규모 야생차체험관을 설립한 주역이기도 하다.

"나는 선지식이 아닌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왔으니 헛품을 팔게 되었네. 신문에 내고 말고는 기자선생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살아 온 이야기나 좀 들려 드릴까?"

스님 앞에 놓인 다탁은 찻잔 서너 개를 올려놓으면 딱 좋을 크기다. 가로는 세 뼘쯤 되어 보이고 세로가 한 뼘 반 남짓한 작은 다탁이다. 아무런 무늬도 없고 반듯한 사각의 다탁. 세 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스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탁을 닮아 있었다. 꾸밈없고 크지도 않지만, 흐트러짐이 없고 여물기가 금강석 같은 반세기의 시간이 응축된 유적(幽寂)이었다.

벌교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학생이 세 반, 여학생이 한 반 그렇게 네 반이 동급생이었지. 각 반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사람 넷이 친했어. 그런데 서로 경쟁 관계니까 친한 속에도 은근히 서로를 경계하는 맘이 있었지. 그래서 서로 보는 앞에서는 짐짓 공부 하는 티를 안내려고 했지.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그게 죄다 서양의 철학서적 이었어. 칸트와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를 만난 우리는 자주 토론을 하기도 했고 각자가 골똘하게 인생을 생각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 서양의 철학자들을 접하고 나서 나는 조금씩 염세주의자가 된 거야. 나는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고 형님과 누님들도 공부를 잘 하여 당시로서는 잘 풀렸지. 아버님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절을 하나 지을 정도로 불심도 깊으셨지. 그런 집안에서 내가 염세적으로 흐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는 심각했어. 그 친구들과 수면제를 먹는 내기를 했는데, 참 부질없고 위험한 짓이었지. '세코날'이라고 들어 봤나? 바로 그 수면제였어. 친구 중의 하나가 그걸 50알을 먹고 죽은 거야. 종이에 없을 무(無)자 세 개를 써놓고.

그 친구를 화장한 곳에 가 본 것은 이틀 뒤였어.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 만년필 꽂이 부분의 작은 쇳조각과 허리띠의 버클이 형체를 알아보겠더군. 그걸 보는 순간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 없을 무자 세 개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허무를 느끼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후 친구들과 함께 순천 동화사란 절엘 갔는데, 거기서 청운(淸雲) 스님을 뵈었어. 그 스님은 송광사가 설립한 학교의 교사였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분이었지.

우릴 보고 먼저 물으셨어. "어디서 왔느냐?" "벌교에서 왔습니다." "하늘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본 것이 무엇이냐?" 그만 말이 막혀 버렸지. 벙어리처럼 서 있는 우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오가피 차를 한잔씩 주셨어. 그리고 다시 물으시더군. "마음을 아느냐?" "뭡니까?" "나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중이 되어서 참선을 하면 된다."

나는 그 순간 내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그게 중학교 3학년 가을의 일이야. 그해 겨울방학 때 나는 출가를 하려고 생각을 다지고 있는데 한 선배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 출가하는데 너도 가지 않을래?" 하더군. 뭐 생각할 겨를이 있나? 따라 나섰지. 그 형은 송광사로 가자고 했는데 나는 왠지 선암사가 좋을 것 같았어.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공부도 잘 했던 모범생에게 선암사의 행자 생활은 힘겨웠다. 그것도 겨울철에 절에 들어가 공양간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행자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염세의 그늘에 묻혀 있는 실존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 허무를 느끼고 하늘을 보았으되 바로 그 '느끼고 본 놈'을 알아야 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행자 생활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갈망으로 몸을 축나게 했다.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두어 달을 앓다가 공으로 절밥 축내는 것이 송구스러울 무렵이었다. '길을 잘 못 들었나' 하는 의심까지 찾아드는 어느 날, 칠전선원으로 불려갔다. 선암사 주지를 오래하고 당대 선객들 사이엔 이름이 높던 선곡(禪谷) 스님의 조치였다. 용성 스님의 법을 이은 선파 스님의 상좌인 선곡 스님은 6.25 전쟁 때 유일하게 남아 선암사를 지킨 분이다. 소개령이 내린 와중에 '나마저 절을 비우면 절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며 끝까지 절을 버리지 않은 분이다. 상원사의 한암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허 스님은 그 때가 참으로 행복했다고 회고 했다.

칠전선원에 올라가니까 노장 스님들이 10여 분 계셨어. 어린 나를 예뻐 해 주셔서인지 노장님들 모시는 것이 참 좋았지. 그런데 이 노장님들이 차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다각(茶角) 소임을 맡은 나로서는 차 끓여 올리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 차가 나올 때는 그날 덖은 차를 그날 다 올려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몸도 안정되고 일도 즐겁게 하던 어느 날 선곡 스님께 차를 갖다 드렸어. 스님이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더군. "지용(智溶, 사미 때의 이름)아." "네."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냐?" "마음이 제일 큽니다." 나는 나름대로 스님께서 법담을 하시는 줄 알고 아는 체를 좀 했는데,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 "마음이 크다? 하늘이 크지." 나는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 하늘이란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보이는 것이니 인식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마음이 더 큰 것이란 생각이었지.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다시 차를 갖다 드리고 자리에 앉아 여쭈었어. "분명 하늘 보다 마음이 더 큰데 그 큰 것을 모릅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차만 드셨어. 차를 다 드시고 잔을 돌려주시면서 "내 차는 내가 마셨다" 라고 하시는데 그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이것이 네가 네 차를 마시는 도리다." 나는 그렇게 선곡 스님에게 화두를 받은 거야.

이후 지허 스님은 강원에 들어가 경을 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운 시절, 공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절집의 시절인연이었다. 선곡 스님이 편지 한 장과 함께 해인사로 가라고 하여 해인사 용탑에서 고암 스님을 2년여 시봉했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께 대들었던 지허 스님의 회고담이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

한 때, 용성 스님께서 제방 선원에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일구(一句)를 일러라" 하는 전갈을 내니까 만공 스님이 "작야몽중사(昨夜夢中事)니라" 라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옻 옻가네 토종참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인류를 자연으로 돌려야지”

선지식을 찾아서 지허

고 답했고 보월 스님은 “불불(佛佛)이 불상견(不相見)이라”고 답했지. 용성 스님은 스스로 답하기를 “표화(瓢花)가 천리출(栝裏出) 하니 와재마상전(臥在麻上田)이라 [박꽃이 울안에 피니 삼밭위에 드러누었도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

극락암에서 내가 경봉 스님에게 “저도 한 번 일러 볼까요?” 했더니 스님께서 물으셨어. “안수정등의 일구를 일러라.” “남산화(南山花) 북산홍(北山紅)입니다.” “철저하지 못하다.” “어찌하면 철저하겠습니까?” “정진 또 정진하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을 나오는데 뒤에서 경봉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용성 스님이 안 계시는 게 한이로다.”

나는 순간 우쭐해지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정진 또 정진하라는 경책을 뼈에 새겼지. 그리고 더 이상 떠돌지 않으리란 생각에 고향과도 같은 선암사로 다시 돌아왔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로암 터에 토굴을 짓고 혼자 정진을 했는데 왜 그렇게 즐겁고 힘이 나던지. 나는 선곡 스님에게 받은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고 몽매일여가 되도록 정진을 했어. 즐거웠지.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도 다 즐거움 그 자체였지. 그러던 어느 날 산비탈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지게 목발이 뭣에 걸려서 지게를 진채로 20여 바퀴를 굴렀어. 순식간에 넘어져 마구 굴러 내려가다가 일어섰는데, 아차 싶더라고. 일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넘어져 구르는 동안에 그만 내게서 화두가 달아나고 없었던 것이야.

지허 스님은 심각했다. 나름대로 제방을 다니고 보고 듣고 느낀 바 있어 홀로 토굴을 짓고 정진을 했는데, 그래서 몽중일여의 즐거운 나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남의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하는 일도 팽개치고 지독하게 정진했다. 죽음의 관문을 넘어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나가다가 기러기 떼가 ‘끼욱 끼욱’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가 싶더니 천지가 무너졌다. 마당에 내려서서 작대기로 땅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천심비로화개홍(千深毘盧花開紅)
만리장천안성백(萬里長天雁聲白)
용로중출청량월(鎔爐中出淸凉月)
삼라상두무영인(森羅相頭無影印)
비로암은 천길 깊은데 꽃 피어 붉고
끝없는 하늘가 맑디맑은 기러기 소리여.

용광로 속에서 밝은 달뜨니 삼라만상 머리마다 그림자 없는 도장 찍었도다.

그해 가을 지허 스님은 산길을 넘어 송광사 삼일암을 찾아 갔다. 삼일암에는 방장 구산 스님이 계셨다. 작대기로 문을 두드리니 시자가 나왔다. 방장 스님 친견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큰스님을 모시는 시자에게 남루한 옷에 초췌한 얼굴, 작대기 하나 끌고 온 객승이 탐탁찮은 거야 당연지사. “시자님,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방장 스님에게 일러 주시오.” 결국 방으로 불러들이신 방장 구산 스님이 물으셨다. “어디서 왔는고?” “조계산 양지에서 왔습니다.” “선암사인가?” “아닙니다. 양지에서 왔습니다.” “뭐하고 사느냐?” “비로암에 삽니다.” “침굉 스님 사시던 곳?” “그렇습니다.” “화두는 있느냐?” “만법귀일 일귀하처입니다.” “낙처(落處)를 아느냐?” “한 번 물어 주십시오.” “무엇이 만법귀일 일귀하처인고?” “동쪽 처녀가 서쪽 오랑캐를 업고 갑니다.” “아니다. 다시 일러라.” “서쪽오랑캐가 동쪽 처녀 등에 업혀 갑니다.” “더 없는가?” “망상이 한 구절 생겼으나 떨쳐 버렸습니다. 한 번 써 보겠습니다.” 지허 스님은 비로암 마당에 썼던 글귀를 써 보여 드렸다. 그리고 그간의 살림살이를 말씀드렸다. 구산 스님이 가까이 앉으라 하시더니 손을 잡고 문 밖을 내다보시며 “저기 감이 한창이네” 하셨다. 지허 스님이 바로 받았다. “감이 어떻습니까?” “붉은 감도 떨어지고 선감도 떨어지네.” “선감도 먹고 붉은 감도 먹습니다.”



그날 밤 구산 스님은 지허 스님을 옆에서 자라고 했다. 자정이 가까워서 잠자리에 누운 것인데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구산 스님이 ‘어험!’ 하고 기침 소리를 내셨다. 지허 스님도 ‘어험!’ 했다. 침묵. 한 시간 쯤 다시 지나고 구산 스님이 ‘어험!’ 하시고 지허 스님도 ‘어험!’ 했다. 한 시간 쯤 있다가 구산 스님이 일어 나셨고 지허 스님도 따라 일어났다. “잘 잤느냐?” “삼일암 잠이 이렇게 꿀같이 단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침 인사를 나눴다. 비로암으로 넘어 온 뒤 구산 스님은 가끔 지허 스님에게 먹을 것과 약을 보내기도 하셨다. 그러나 구산 스님이 입멸에 들었을 때는 문상을 하지 못했다. 선암사 대중의 오해를 사기 싫어서였다.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의 정점에 있는 선암사의 현실이었다. 지허 스님은 그러한 선암사에서 주지를 12년 했다. 중창불사와 가람수호의 세월은 지허 스님에게 또 다른 ‘사관(死關)’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불사 가운데 조사전 건립불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의 달마 이래 육조를 거쳐 이어 온 선맥이 석옥청공을 거쳐 한국의 태고 보우로 이어지고 선암사 침굉선사로 흘러 온 선맥을 밝혀 둔 것이다.

이젠 다 놓았어. 공부하러 절에 와서 절일만 하느라 시간 다 가고 인생을 조저부렀지 뭣인가. 나는 그래도 세 가지는 잘 해. 나무 잘하고 빨래 잘하고 그리고 돌담을 잘 쌓지. 태고선원은 반농반선이 원칙이야. 일 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여 인류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모두 행복한가? 이제 신농경사회로 가야해. 변혁을 하지 않으면 발전 못하고 잘 살 수도 없어. 신농경사회란 오염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지. 절이 먼저 솔선해야 해. 절이야 말로 자연과 함께 인간의 참 성품 깨우치면서 살 길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잖아. 차 농사를 지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결국 불교가 해야 해. 인류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을 말이야.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군. 그만 할까?

금둔사 태고선원 뒤란에 섣달에 피는 납월매(納月梅)가 열 댓 송이 피어 붉은 향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글 · 사진=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1〉 숭산행원 대선사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숭산 스님은 한국이 낳은 달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제 마음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스턴에서 나는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을 보았다.

하나는 심광사 주지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4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신검(神劍)을 휘둘러 방(榜)을 저격한 장면이고, 둘째는 103명 세계 법왕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 대학교수가 일곱 번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몇 번째 남자와 결혼해야 좋겠느냐고 질문한 장면이다.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을 신검으로 세상을 교화하기 힘썼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숭산 스님을 만나 일본의 사무라이를 연상케 하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의 검도와 ‘임제 할(喝: 고함)’ ‘덕산 방(棒: 몽둥이질)’의 원리를 듣고 불법에 귀의한 덕생동자가 천주교 교회당을 사서 십자가 마리아상도 그대로 놓아두고 오직 작은 부처님 한분을 성당에 모시고 불법을 펴 성공한 예를 나는 보았다.

또 수백 평의 정원 방갈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주인을 잃고 있을 때 뱃장으로 사들여 한 달에 700불씩 주어야 간신히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그의 반 값인 350불에 부부동반도 좋다고 딱지를 붙이고, 단지 조석예불만 드릴 수 있으면 환영한다고 한 것이, 52개 빈방이 꽉 차고 불당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예불을 올리고 있었다.

필자가 참석한 날은 세계 각국의 법사들이 모여 3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회향하는 날이라 더욱 의의가 깊었는데, 앞서와 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다.

“뉴욕에 들러 보니 영역 불전이 1백여 권에 달하는데 <인과업보경>을 찾아보면 당신의 애인이 몇 번째 애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듬 해 그들 부부는 화계사에 와서 전화하였다.

“스승의 나라 덕숭산에 가서 100일 동안 참선한 뒤 여기서 결혼하여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겠다.”



숭산 스님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 것을 산과 물로 착각한 것은 세속 인간이다. 만약 한 생각 뒤집어 진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양과 견(見)을 따라 흐르는 물이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허공처럼 비어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체(體) · 상(相) · 용(用)을 마음대로 응용하여 지지고 볶으며, 조려 마음대로 식성따라 먹게 하였다.

스님께서 일본, 중국, 소련, 유럽 등 가는 곳마다 주신 편지와 전화통화를 듣고 정리한 것이 <세계불교 순회포교기>이고, <선학강좌> <도화백칙(道話百則)>과 수시 법어, 법거량(선문답)을 종합 정리한 것이 <천강에 비친 달>이다. 그러나 그것은 숭산 스님의 발자취를 보고 기록한 것이고, 아직 그 참 모습은 정리하지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숭산 스님의 재가제자인 닥터 최이다. 원래 그 분은 조그마한 빠(bar)를 경영하면서 도반들이 담은 김치를 팔아 하와이 대원사 불사와 숭산 스님의 포교에 일조(一助)가 되었다. 그런데 근기가 뛰어나 무엇이고 한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것이 없었고, 특히 선법문에 대해서는 기지가 있었다. 불란서 홍법원을 만들 때도 그 분이 돈을 내어 설립하였고, 유럽 각국의 제자들을 돕는데도 인로왕보살 역할을 하였다. 특히 퐁피두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을 교화한 이 후에는 유럽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명망 있는 클럽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화계사에 가보니 둘이 다 머리를 깎고 눈썹까지 밀어버렸다.

“언제 스님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모든 것을 참회하고자 삭발하였을 뿐입니다.”

그 뒤 두 분은 화계사에서 간단히 예식을 올리고 귀국했는데, 지금은 보스턴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여간 숭산 스님은 이런 분이다. 돈 한 푼 없이 일본 · 미국 · 홍콩 · 뉴욕에 다니며 포교하다 보니 말도 많고 설도 많았다. 그러나 스님의 의지는 분명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설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잘 알고 있다.”

스님의 법문은 간단했다.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있다고 해도 30 방망이고 없다고 해도 30 방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산은 푸르고 땅은 누르다. 악!”

이 세상 모든 철학과 과학과 논리는 유 · 무 · 중(有 · 無 · 中)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세계를 뛰어 넘으면 불가사의, 불가지(不可知), 불가량(不可量)의 해탈경계가 나타난다. 산은 언제나 푸르고, 땅은 언제나 누르다. 그러므로 스님은 “모르는 것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장담하셨다.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 것을 산과 물로 착각한 것은 세속 인간이다. 만약 한 생각 뒤집어 진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양과 견(見)을 따라 흐르는 물이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허공처럼 비어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체(體) · 상(相) · 용(用)을 마음대로 응용하여 지지고 볶으며, 조려 마음대로 식성따라 먹게 하였다.

스님께서 일본, 중국, 소련,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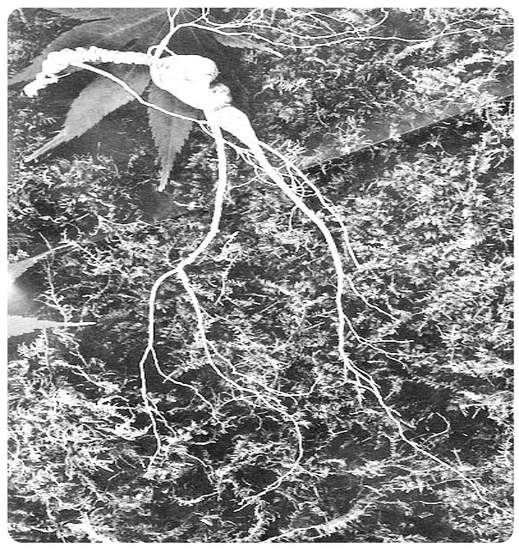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 문의 상담 (자연산삼, 장뇌산삼)
- 자연산삼 150년근 1주 / 120년근 2주 / 80-100년 5주. 보유증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⑦

사대와 마음의 근원에는 본래 병이 없어

有師言 但用止觀檢析身中 四大病不可得 心中病不可得 衆病自差 如是等種種說 用觀治病 應用不同 善得其意 皆能治病 當知止觀二法 若人善得其意 則無病不治也 但今時人根機淺鈍 作此觀想多不成就 世不流傳 又不得於此更學氣術休糧 恐生異見 金石草木之藥 與病相應 亦可服餌

우리의 사대 색신은 지수화풍 외부 사대를 빌려서 이루어져 있다. 만일 외부 사대가 없다면 내적인 우리 몸의 사대도 결코 없다. 지금 내적인 사대에서 병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자기의 색신을 점검하여 미세하게 추구해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만 한다.

가령 내 몸의 지대에 병이 있으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외부 산하대지에도 역시 병이 있어야만 하며, 화대에 병이 있으면 목전의 등불과 땔감에서 일어나는 불 등에도 병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산하 대지와 등불 등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대와 화대 등에도 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와 같이 미세하게 관찰한다면 지수화풍 사대에는 병의 모습이 본래 없고 외부 사대에 병이 없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대를 주재하는 내 마음속에서 병의 모습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으나 그 실체 역시 끝내 얻지 못하였다.

내 마음을 추구해보아도 그 실체를 얻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병의 실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옛날 남악 혜사대사는 산중 암혈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다가 종기와 중풍이 생겨 사지가 무거워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대사는 마음의 근원을 곧바로 관찰하여 병은 업을 따라서 일어나고, 업은 미혹을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미혹을 끝까지 추구해보았으나 실체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자신의 사대병환의 근원을 추구해보았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실체를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이 찾아왔다 해도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누구를 핍박하겠으며 뉘라서 그 병을 받아들이겠는가.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병은 스스로 낫게 된다.

앞에서 큰스님들이 관 수행으로 병을 치료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였다. 비록 큰스님들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체득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수행에서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의미를 체득했으면 언어의 집착을 잊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와 관이라는 두 종류의 수행법문은 다스리지 못할 병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요즘은 시대가 말법에 해당하여 중생의 근기가 천박하고 둔하여 가이 엷는 죄업을 종횡으로 짓고 있다. 이 모두는 미혹으로부터 찾아온 것이다. 이 상태에서 거친 마음, 급한 기운으로 지관수행을 한다면 성취되지 않는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육기(六氣)와 십이식(十二息)을 상상으로 관찰하면서 수행을 한사람들은 많았지만 잘못된 수행 때문에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세간에서는 이 수행법이 지금까지 유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들이 위태로운 몸에 약간이나마 그 수행법을 빌려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몸은 편안해지고 도 역시 간직된다. 만일 이 수행법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자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라면 그것은 허깨비 마군의 짓이므로 급히 버려야만 한다.

이는 대체로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견이 순수하고 올바른 데에 있으므로 털끝만큼의 삿된 생각도 내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대에 병환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관을 수행하여 치료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행 도력이 아직 박약하다면 금석과 약초로 조제한 세간의 약으로 치료해도 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병과 약이 서로 맞는다면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若是鬼病 當用彊心加呪以助治之 若是業報病 要須修福懺悔 患則消滅 此二種治病之法 若行人善得一意 卽可自行兼他 況復具足通達 若都不知 則病生無治 非唯廢修正法 亦恐性命有虞 豈可自行教人 是故欲修止觀之者 必須善解內心治病方法 其法非一 得意在人 豈可傳於文耳

앞에서 사대와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지관수행과 금석이나 약초로 조제한 약으로 치료하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론하였다.

병은 업에서 일어나고, 업은 미혹에서 일어나
지관 두 법은 의미만 체득해도 많은 병 치유

그러나 가령 귀신병이라면 견고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고 여기에다 주력의 힘을 더해야 한다. 주력이란 신묘장구대다라니 능엄주 왕생주와 삼십육수주(三十六獸呪) 등으로 보조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귀신병이 아니고 전생의 업 때문에 일어난 과보의 병이라면 반드시 부처님 앞에서 광대하게 공양을 해야만 하는데, 공양물이란 향과 꽃과 영락 등을 말한다. 혹은 선지식에게 의복과 음식과 침상과 의약 등 네 가지 일로서 공양을 해도 된다.

이와 같이 밖으로는 복덕을 닦고 내적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회한다면 전생의 업보로 일어난 병이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앞서 나왔던 신묘장구대다라니나 왕생주 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가령 시간 따라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귀신의 장난이라면 반드시 삼십육수주를 외워야만 한다. 그 주문을 말해본다면 '波提陀 毗耶多 那摩那 吉利波 阿違婆 推摩陀 難陀羅 憂陁摩 吉利摩 毗利吉 遮陀摩'이다

이 두 종류의 병 치료법가운데서 수행인이 그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 잘 체득하고 여법하게 치료한다면 자신의 수행에 만족할 뿐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두 종류의 병 치료법 가운데 하나만 알아도 이와 같이 훌륭한데 두 가지 방법을 완전하게 통달한다면 자리이타의 공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러나 두 종류의 병 치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병이 일어날 때 손을 써 볼 수가 없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럴 경우 정법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마저 끊어질 염려가 있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가 화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부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대만 조화가 되지 않아도 병이 일어나는데, 사대 전체가 조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이 보존 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자신이 수행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까지 교화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내적인 마음으로 병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나 번다하므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있는데 이를 어떻게 문자로서 전수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문자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데 비해 그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실천수행론(實踐修行論)

팔정도(八正道)

팔정도(八正道)는 팔성도(八聖道)라고도 합니다. 사제법문에서 고집이제(苦集二諦)를 소멸시키려면 반드시 도제(道諦), 즉 정도(正道)를 닦아야만 열반멸제(涅槃滅諦)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정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견(正見)

무명으로 인해 세계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허다하게 사견(邪見)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뇌가 생산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올바른 견해가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정견은 사제의 이치를 명백하게 관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견해가 있어야만 도덕적인 수행을 올바르게 하여 끝내는 열반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정사유(正思惟)

사제의 이치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지녔다면 여기에서 다시 치밀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사유하여 진실한 지혜가 더욱 증가하게 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탐욕스러운 생각, 성내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온화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3) 정어(正語)

정사유를 통한 정확한 사상을 지녔다면 반드시 실제적인 실천에 부합해야만 공리공론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사상을 가장 먼저 현실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어는 허망하지 않은 말, 비방하지 않는 말, 꾸미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속담에 '병은 입을 따라 들어오듯 재앙도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는데, 말을 삼가야만 원한을 부르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4) 정업(正業)

'업'은 모든 행위를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어가 정사유의 초보적인 실천이라면 올바른 행위는 그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정업은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것까지 포괄하는데, 일체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인데, 악업을 짓지 않아야만 괴로움의 과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5) 정명(正命)

'명'은 생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물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의롭지 않은 물건은 취하지 않아야만 하며, 사치스러운 생활도 추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두고 '정명', 즉 올바른 생활태도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이름 모를 병,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9. 2. 21(토) 오전 9시부터 ~ 2. 22(일) 오후 1시까지
(2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요망)
(2)수강료 : 34만원 (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참나를 찾는 수행도량 금강선원

금강선원에서는 혜거 큰 스님과 함께하는 "제28기 선하불교대학"과 "제14기 기초참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하불교대학은 불교교리, 의전, 기도법 등을 공부하여 자신을 향상시키는 불교입문과정입니다
– 개강일시 : 2009.3.2(월) 10:30~14:00
– 수강기간 : 14주 (매주 월요일)
– 회 비 : 6만원 (교재비 별도)

기초참선과정은 참선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참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과정입니다
– 개강일시 : 2009.3.2(월) 15:00~17:00
– 수강기간 : 14주 (매주 월요일)
– 회 비 : 20만원

金剛禪院
서울시 강남구 개포 3동 186-3 상업업무지역 삼우빌딩405호
전화 (02)445-8484 / Fax : (02)445-8043 / E-mail : keumgang-sw@hanmail.net

관세음보살은 법당 밖 농부들 새참바구니에도 있어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7〉

제2장 길 없는 길 3

장성역에서 기차를 탄 남영은 이른 새벽에 대전역에서 내렸다. 대구역으로 가는 경부선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마침 경부선 완행열차가 기적소리를 내지르며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다. 남영은 차표를 산 뒤 대구행 기차를 확인하고는 올라탔다. 기차는 이미 승객들로 통로까지 가득 차 있었다. 키가 작은 남영은 숨이 막혔다. 흰색 양복이 구겨지고 백구두가 밟혔다.

기차가 서너 정거장을 지난 뒤에야 먼동이 텄다. 동녘 하늘이 붉어지더니 푸른빛이 돌았다. 영동역에서는 장돌뱅이 승객들이 우르르 자루에서 감자 쏟아지듯 내렸다. 그제야 남영은 자리를 하나 잡고 앉았다. 좌석을 차지한 승객들은 하나같이 눈을 감았다. 남영은 쪽빛으로 변해가는 차창을 응시하며 또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일본에 갔을 때부터 암호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것일까?"
행자 받지 않는 절 해인사서 출가할 것 믿어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것일까.'

남영에게는 스스로 든 화두로써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답이 없는 의문이기 때문인지 한번 그 생각에 빠지면 깊이깊이 들어갔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다. 어떤 날은 한 나절을 그 생각으로 흘려보낸 적이 있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한 나절이 한 순간처럼 빨랐다.

남영은 혹시 눈이 하나인 애꾸눈이 있나 하고 살폈다. 그러나 옆에 앉은 아주머니도, 앞에 앉은 스님과 모자를 쓴 대학생도 모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스님이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눈을 떴다. 남영은 스님에게 합장했다. 스님이 물었다.

"어디까지 가시오?"

"해인사로 갑니다."

"스님은요?"

"나는 팔공산 파계사로 갑니다."

남영은 마음속으로 기대했는데 아쉬웠다. 자신과 행선지가 달랐다. 그러나 대구까지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남영은 스님에게 스스로 늘 의문을 품어 왔던 자신만의 화두를 물었다.

"스님,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것일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그것이 답이었다. 답을 듣고자 했는데 오히려 남영에게 질문을 던진 셈이었다.

'스님은 왜 주먹을 들어 보였을까?'

남영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이번에는 스님이 물었다.

"거사님,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른쪽은 옳은 것을 보고, 왼쪽은 그른 것을 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좌석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던 아주머니와 대학생도 눈을 떴다. 남영이 대답을 못하고 있자, 스님이 대학생에게 물었다.

"학생이 한번 대답해 봐요."

"한 번 볼 것을 또 한 번 더 보라는 뜻으로 눈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눈이 세 개라면 세 번을 보라는 뜻이겠네."

남영과 얘기할 때는 진지한 분위기였지만 학생과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농담으로 변했다.

"학생, 입이 하나인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은?"

"미련한 바보가 콧구멍 후벼 파다가 숨 막혀 죽을까봐서요."

남영도 소리 내어 웃고, 수심에 잠겨 있던 아주머니도 웃었다. 스님이 아주머니에게 말을 시켰다.

"보살님, 걱정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업이려니 하고 웃고 사세요."

"스님, 지는 눈이 있어 괴로워유.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허구헌날 이 두 눈으로 보고 사니깨유."

"보살님, 두 눈으로 미워하는 것만 보지 마세요. 한쪽 눈은 사랑을 보는 데 쓰세요. 그러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들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남영은 스님이 아주머니의 고민을 들어주는 동안 다시 그 생각에 빠져들었다. 일단 그 생각에 빠지면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었다. 남영이 차창 밖에만 눈을 주고 있자, 스님은 더 이상 남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기차는 기적소리를 터뜨리며 계속 남행했다. 차창 밖은 어느 새 아침으로 변해 있었다. 철로 변에 핀 진달래꽃이 붉게 스쳤다. 진달래꽃의 잔상이 차창에 아롱거렸다. 농부들은 들판으로 나와 못자리를 만드느라 물을 대고 있었다. 차창 밖은 신록이 풋풋한 4월 초순의 봄이었다.

훗날 혜암은 이 무렵 자신만의 화두를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 시절 나로서는 강한 의문이었어.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걸까. 내게는 화두 비슷한 묘한 의문이었어. 일본불교는 형식에 치우쳐 있어 한국에서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였지. 일본 임제종 절의 유나로 계시던 서옹 스님을 뵙고 〈금경경〉 한 권과 '참선하라'는 말씀을 얻은 뒤에 한국으로 왔지."

남영은 대구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야로면까지 왔다. 해인사를 가려면 야로면에서 하차해 걸어야 했다. 당시만 해도 해인사까지 가는 버스가 없었다. 초봄이었으므로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았다. 들에는 소를 몰면서 논을 갈아 뒤엎는 농부도 보이고, 나물을 캐는 아낙네도 보였다.

야로면 면사무소에서 해인사까지는 30여 리 길이었다. 남영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해인사에 가면 도인들이 많다는데, 누구를 먼저 만날지 가슴이 설레었다. 해인사 도인 중에 남영이 알고 있는 도인은 해방 전에 판사 출신으로 출가하여 금강산에서 깨친 효봉(曉峰)이 있었다. 물론 한 번도 만나 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다. 아마도 백양사 노스님이 '해인사 도인'이라고 했던 분도 해인사 조실채에 주석하는 효봉일 터였다.

논에서 새참을 먹던 농부들이 남영을 불렀다. 논둑에 펼쳐 놓은 새참은 검은 보리쌀 밥에 고추장과 된장국이 전부였다. 남영은 시장했으므로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웠다. 한 농부가 남영을 보고는 말했다.

"시님 노릇 하러 가는교?"

"그렇습니다."

"시님들을 많이 봐서 압니데이. 행색만 봐도 좀 보인다 아입니꺼."

"고맙습니다."

"한 그릇 더 하시소. 배고플 때는 뭐니뭐니해도 밥이 관세음보살 아닌교."

남영은 두 눈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피곤하던 눈이 밝아졌다. 새참 바구니에 담긴 밥이 달리 보였다. 거룩하고 따뜻하게 보였다. 관세음보살이 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새참 바구니 안에도 있었다.

남영은 산길을 걸으면서 무릎을 쳤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이구나!'

헐벗은 이에게는
옷 한 벌이 관세음보살.

배고픈 이에게는
밥 한 그릇이 관세음보살.

잠잘 데 없는 이에게는
방 한 칸이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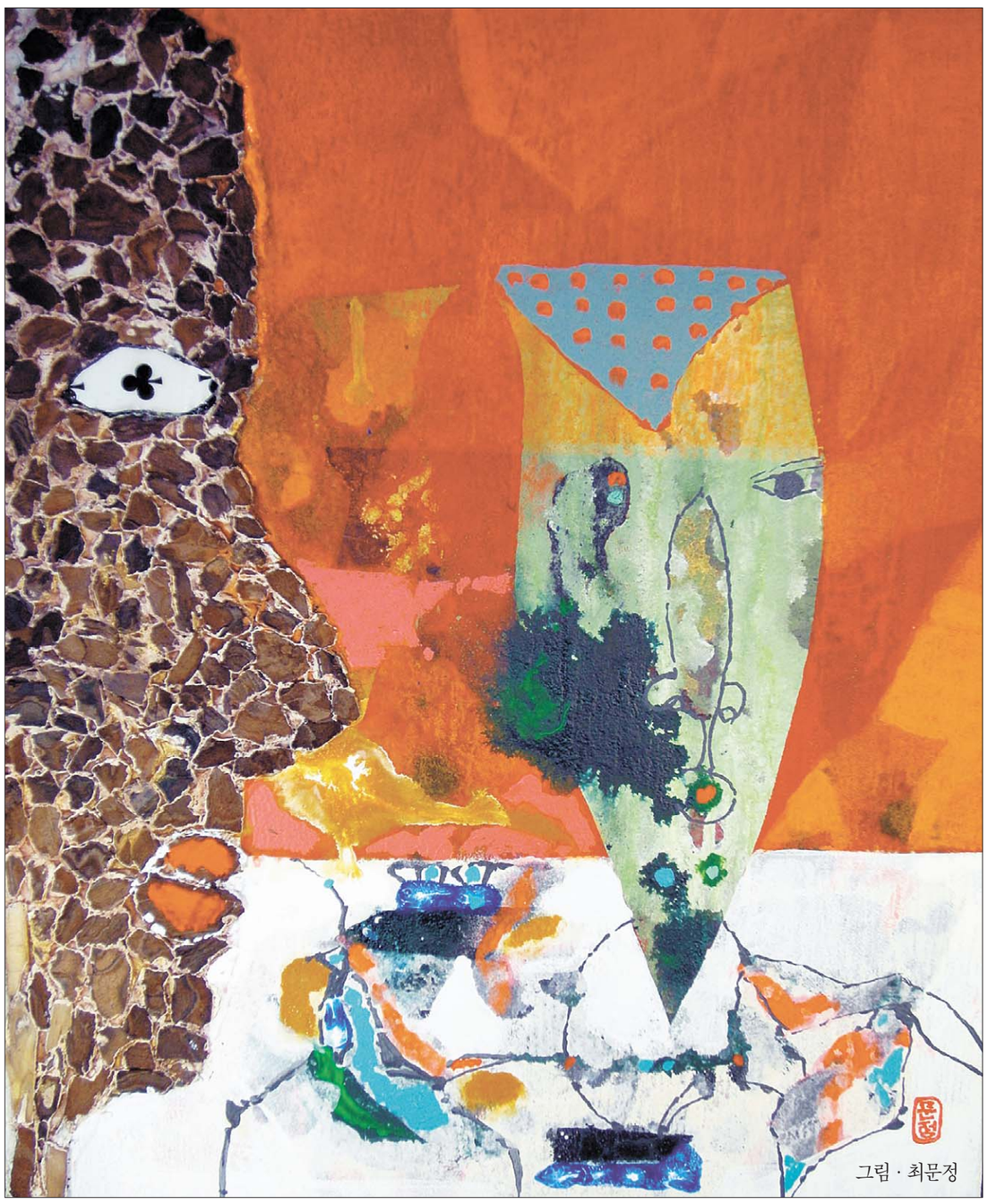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홍류동 초입에 이르자 해인사로 가는 스님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낙락장송 너머로 바랑을 메고 가는 스님들의 뒷모습에 남영은 넋을 잃었다. 세상을 초탈한 대장부의 기상이 느껴졌다. 홍류동 바위 사이로 무심히 흐르는 계곡물처럼 스님들의 자재한 걸음걸이도 걸림이 없었다. 남영은 뛰다시피 걸어 바랑을 메고 가는 스님을 불렀다.

"스님."

솔숲 산길을 사뿐사뿐 걷던 스님이 뒤돌아보자 남영이 말했다.

"스님, 저도 해인사로 갑니다."

"어서 오시오."

"해인사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초행길이군요. 한 십리 더 가야 합니다."

산길에는 낙엽이 된 솔잎이 뒤덮고 있었다. 누런 솔잎을 밟을 때마다 솔향기가 솟구쳐 코끝을 적셨다. 그런가 하면 솔바람소리는 귀를 맑혔다.

"해인사 스님이십니까?"

"아니오. 난 수원 용주사 스님이오. 이번 여름을 해인사에 나려고 방부 들이러 가는 길이오."

"스님, 저도 해인사에서 살러 갑니다."

"중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겉보기에는 속세에서 공부할 사람 같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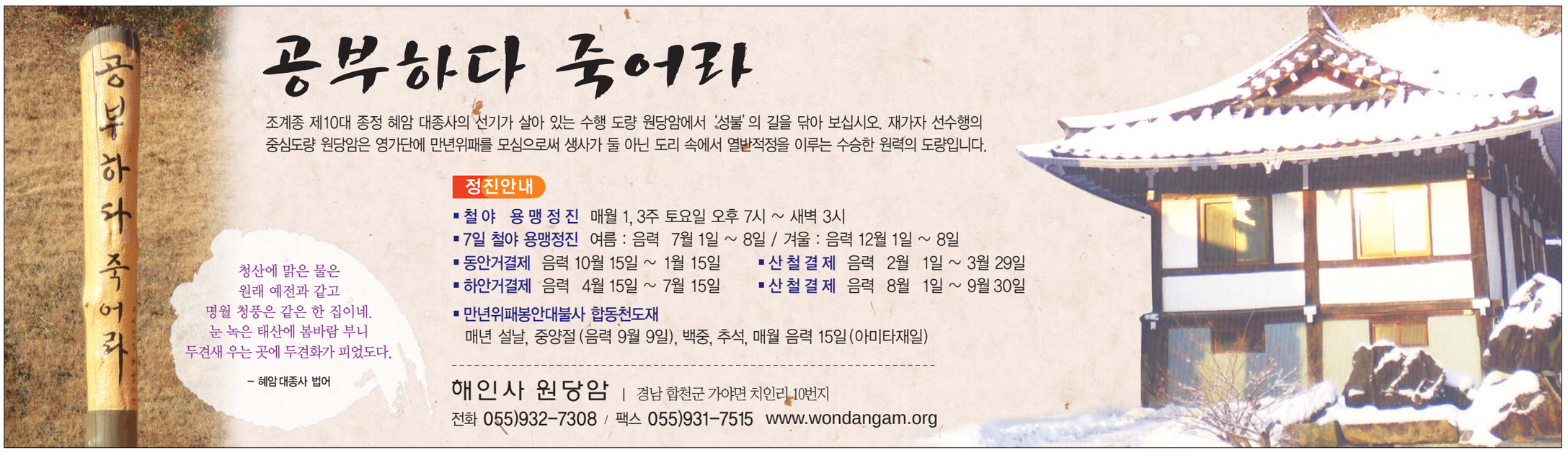
"도인 되는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소만 해인사는 행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로 유명합니다."

스님의 말에 남영은 낙심했다. 아무나 행자로 들이지 않는다는 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남영은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그럴 자신이 있었다. 무엇이든 한 번 결심하면 바꾸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남영은 용주사 스님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남영은 해인사에서 받아줄 것으로 낙관했다. 남영의 낙관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마음을 다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일이 꼬일 때마다 남영은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을 떠올렸던 것이다.

<계속>



불서광장



'금과옥조' 걸렸어도 뜻 모르면 '꽝' 인걸

<마음으로 찾는 절집여행 산사의 주련>은 절 기둥에 걸린 주련을 해설하고 있다. 누구나 주련을 보면 뭔가 심오한 뜻을 가진 글귀 같은데 도대체 읽고 해석할 수 없으니 답답했을 것이다. 금과옥조가 걸려 있어도 뜻을 모르니 '꽝'인 거다. 책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 절에서 자주 쓰는 주련의 내용을 쉽게 풀이 했다. 아름답고 정겨운 산사의 풍경은 덤이다. 제운 스님, 한민 지음/청년정신 펴냄/1만5500원.



절을 하면 절로 살 빠지고 운동이 된다?

<108번의 내려놓음>은 108배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가장 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효과를 낳는 법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108배는 수행인가 기도인가 아니면 운동인가 하는 물음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생각은 접어두자. 우선 하루 15분 몸을 움직여 108번의 절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라. 일단 도전 한다면, 스스로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므로. 표만석 지음/랜덤하우스펴냄/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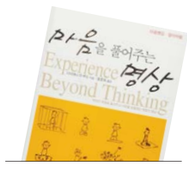
청정한 수행이 주는 청량한 소식들

<내 안의 풍경>은 비구니 청호 스님이 그려내는 풍경이다. 스님의 마음 안에 그려지고 있는 일상의 풍경들은 맑다. 맑은 글은 생각이 맑고 행동이 맑은 곳에서 나온다. 절기가 바뀌는 것도 맑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욕심을 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청정하게 그려질 수 있다. 자연을 경전으로 바라보는 경건함과 청순함의 맛은 그 풍경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청호 스님 지음/ 청어 펴냄/9000원.



두 형제의 구도 이야기 그리고 '인연'

<꿈속의 인연들>은 구도소설이다. 해인사 통도사에서 강사를 하다가 전국의 선방을 다니며 참선 정진 하고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 묵언 수행을 했던 기후 스님이 소설을 쓴 까닭은? 소설은 두 형제가 절집에 들어와 청명하게 공부를 하면서 진리의 길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을 길러준 은사 스님이 할아버지의 제자라는 기연과 주인공의 범상치 않은 열반이 '인연'의 깊이를 끌고 간다. 기후 스님 지음/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1만 2000원.



생활 속에서의 알아차림, 명상의 길잡이

<마음을 풀어주는 명상>은 명상 안내서다. 저자가 20년간의 불교명상 경험을 토대로 했다. 영국 출신의 선수행자인 저자는 "명상은 생활에서 겪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며 생활 하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모든 수수께끼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라 말한다. 명상의 마음가짐, 신체의 자세, 그리고 호흡과 느낌 등을 안내한다. 다이에나 St 루드 지음/홍종욱 옮김/지혜의 나무 펴냄/ 1만원.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막는 장애물 걷어내기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바라밀 행의 실천 지침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여섯 가지 실천 과제는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교리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 교리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고목일 뿐이다. 저자는 탐진치 삼독이 육바라밀행을 막는 근본 요인으로 보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다. 권영택 지음/정우서적 펴냄/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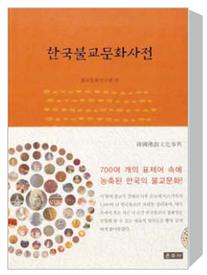
東大 불문연 '한국불교문화사전' …700여 표제어 상세 설명

용어를 알면 불교문화가 보인다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배우고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아무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용어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면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바라춤이나 나비춤의 의미를 모르면 영산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영산재의 의미를 모르는데 바라춤이나 나비춤을 이해 할 수 없듯이. 결국 용어에 대한 알음알이라도 있어야 시연을 보면서 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영산재에만 해도 수많은 용어가 있다. 영산재에 동원되는 용어들이 영산재불의 뼈대이므로. 불교문화의 이해는 용어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도 용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이 불교문화사전을 펴낸 이유도 용어를 통해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700개의 표제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불교문화 전 분야에 동원되는 용어가 700개를 훨씬 초과하겠지만, 우선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주제별로 모은 것이다. 역사 인물 사찰 건축 회화 조각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용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다. 표제어에 대한 해설을 가급적 평이하게 함으로써 불교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제어에 따라 사진을 첨가하기도 했다.





부록으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불교문화재의 도해와 세부 명칭이 설명됐다. 또 불교문화 체험을 주도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리스트도 수록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이 사전을 시작으로 개정 증보판을 계속 낼 생각이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역본도 낼 계획이다. 영역 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책은 내년쯤 나올 예정이다. (운주사, 2만5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지금의 나쁜 일? 더 좋아지기 위한 것



조아질라고
범일 스님 지음|불광출판사 펴냄
1만1000원

"지금 힘든 일은 나중에 일어날 좋은 일을 대비해 생긴 것이다."

경기도 양평 서종사에서 사이버 도량(www.joajilrago.com)을 꾸리며 회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범일 스님은 모든 일은 좋아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길 권한다. 스님이 펴낸 <조아질라고>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범일 스님은 서종사를 거닐고, 해우소를 청소하고, 차를 마시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떠오른 단상을 1999년부터 사진과 에세이 형식으로 올려왔다. 여기서 위안과 힘을 얻은 사이버 도량 회원들이 104편으로 직접 추려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일들도 '조아질라고'처럼 현재 진행형"이라는 스님은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여 직장도, 일도, 인연이 다된 것이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나타나듯이 어쩌면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한다. 또 스님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손목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화두참선을 하던 중 '좋아질라고 손목이 아픈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손목 통증이 사라지게 됐다며" '조아질라고'의 효능을 설명하기도 한다.

스님은 단언한다. "언제든 힘든 일이 올 수 밖에 없다. 해는 뜨고 지고 산을 오른 사람은 내려오듯 모든 일은 좋아지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나은 기자

'웃기는 이야기' 속에 담긴 삶의 지혜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휴먼앤북스 펴냄
1만3500원

부처님은 무지한 중생에게 깨침의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방편설(方便說)'을 사용했다. 듣는 사람의 상황과 지식 정도 혹은 마음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비유를 들어 깨우침의 길을 안내 한 것이다.

<백유경>은 백 가지의 비유를 담은 가르침이다. 5세기 때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편집한 100개의 이야기인데 현재는 98개가 전한다. 사람이 사는 가장 현실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참다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오심 스님이 불교 TV에서 강의한 내용을 추려서 한권의 책으로 묶은 <백유경 이야기>는 원래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해학과 위트 속에 담긴 깨침의 요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오심 스님은 <백유경>은 읽는 사람에게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하는 측은지심과 '혹시 나는?' 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나도 그랬구나' 하는 자아반성을 던져 줌으로써 유머에서 삶의 동력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견성의 지름길, '보는 놈'을 보는 것



보는 놈을 보라
전재근 지음|초롱 펴냄|1만원

불자가 아닌 사람도 <반야심경>이란 경의 이름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에서 봉송되는 <반야심경>은 삼귀의 사홍서원 등의 찬불가와 함께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경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이지만 그 대의와 상세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방대한 반야부 경전의 엑기스라는 말만 들었지 목구멍으로 넘겨 소화시키기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였고 서울대불자회를 창립한 중심이었던 전재근 박사에게 <반야심경>은 각별하다. 전 박사는 한 선지식(겸우 스님)의 강의를 통해 <반야심경>의 요체를 분명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나누고자 <보는 놈을 보라>를 펴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책의 제목 그대로 '보는 놈'을 '보라'는 것이다. 보는 자(subject)와 볼 대상(object)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라는 것이다. 물론 '보는 놈'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여 지는 것은 모두가 '공(空)'하기 때문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인과경	현담	선
6	삶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양우회	양우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9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강선희	불광출판사
10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3교

'한국춤에 빠지다' 펴낸 춤꾼 김지원씨

"한국 춤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우리 춤 공연장에 오셨어요. 첫 무대는 '승무'였는데, 막이 오르고 무용수가 무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본 그 교수님이 '흠, 저 동작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뜻하나?' 라고 중얼 거리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혀 오는 듯 했습니다."

춤꾼이고 이론가인 김지원(사진)씨는 그때서야 한국 춤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해설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에도 한국 춤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책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승무 공연이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진행자가 관객을 향해 '우리 춤은 관객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감상하라 '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외국인이 동행한 사람에게 '얼씨구'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시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국 춤을 전공한 저 역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지원씨는 한국 춤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직접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누구나 춤을 관람하면서 '아하 저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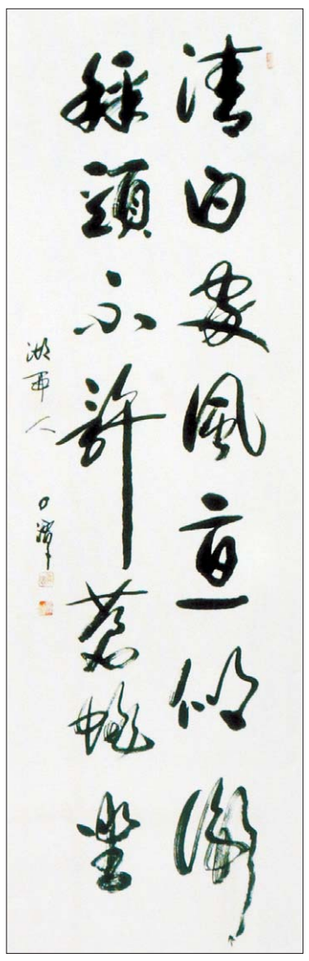
김지원씨는 <한국춤에 빠지다>를 통해 많은 것을 묻고 답했다. '춤과 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강강술래는 팔월대보름에 추었을까?'에 이르기까지 40가지다. 한국 춤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을 자분자분 풀어 주고 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대목에서는 '팁'을 두어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한국 춤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 춤에 대한 설명도 진지하게 했다. 김지원씨는 한국 춤의 발전은 국민의 '사랑'에 달려 있는 만큼 한국 춤을 제대로 널리 알리는 일에도 춤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 <한국 춤에 빠지다>는 발레 해설서가 인기를 얻는 것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춤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이 약한 것도 결국 쉬운 길잡이를 제공하지 않은 탓임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책들이 나올 테니까요."

임연태 기자

'원담 대종사 추모 유작전' 3월 15일까지 개최

선서 · 10폭 병풍 금강경 · 선화 등 전시



원담 스님은 선(禪)을 묻는 수좌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답을 하곤 하셨다. 사진은 스님의 휘호.

덕숭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圓潭: 1926~2008)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를 앞두고 원담 스님 추모 유작전이 열린다.

수덕사(주지 옹산)는 2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응노 화백의 자취가 서려있는 수덕여관을 개조해 만든 수덕사선미술관에서 원담 스님을 추모하는 서예 작품전을 연다. 작품은 원담 스님의 천진하면서도 걸림없는 도풍(道風)과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깃든 선필(禪筆) 22여 점이 선보인다. 10폭 병풍에 쓰여진 <금강경>과 8폭의 <반야심경>을 비롯해 '만수무강', '온고지신(溫故知新)', '고목생화(枯木生花)', '근화만개(槿花滿開)', 선화(禪畵), 경허스님 오도가 등 모두 20여 점이다.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鏡虛)-만공(滿空) 스님의 선풍을 계승한 원담 스님은 1926년 전북 옥구군에서 태어나 충남 서산에서 자랐다. 10살 때 이모를 따라 수덕사를 방문하고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을 본 뒤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 후 천상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12살의 나이로 만공 스님을 시봉, 1946년 만공 스님이 열반에 들 때까지 모셨던 마지막 법손이다. 스님은 1958년 화엄사 주지를 거쳐 1970년 수덕사 주지를 맡았고 1986년 덕숭총림 제3대 방장으로 취임했다. 또 1994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과 승가사, 개심사 보현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선지종찰 수덕사(禪之宗刹 修德寺)'의 가풍을 충실히 계승한 원담 스님은 도(道)와 예(藝), 중생교화의 세 가지 정점을 잇는 큰 지도자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서화와 예술에도 달통해 장욱진, 이응노 화백 등과 교유하며, 생존시 국내 최고의 선필로 명성이 자자했다. 수덕사 대웅전 현판과 속리산 법주사 주련을 비롯, 스님의 글씨는 전국 사찰의 편액과 주련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스님은 붓글씨를 누구에게도 사사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타고난 선서일여(禪書一如)의 경지를 드러내 1986년 일본의 산케이신문 주최 제3회 국제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같은 해 독립기념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어 얻어진 수익금 전액 7,450만원을 기증하는 등 국내외 서예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스님의 글씨를 받기 위해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스님은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와 천진함으로 반기며,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방편으로 삼았다.

원담 스님의 글씨는 불자와 세속인은 물론, 스님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1980년 양산 통도사에서 원담 스님이 안거정진할 때 쓴 글씨를 보고 경봉 스님이 "자네 글씨가 내 글씨보다 낫네!"라고 무릎을 칠 정도로 스님의 서도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스님을 20여 년간 시봉한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백담사에서 전두환 前 대통령이 글씨 잘 쓰는 법을 물었을때, 스님은 '힘과 재주가 아닌 붓과 정신과 혼이 혼연일체가 된 무심(無心)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12월 그동안 남긴 서예 등을 모아 <원담대종사 선묵집>을 출간하기도 한 옹산 스님은 "탈속하고 해학적이면서 꾸밈과 기교가 없는 일필휘지의 운필(運筆)은 선사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묵향(墨香) 그윽한 선필에서 스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전시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한편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는 3월 7일(음력 2월 11일) 오전 10시 수덕사에서 봉행된다. (041)337-6565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故 원담 대종사.

제14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오세영 · 김홍신씨 등 선정

조계종 총무원 주최, 현대불교문인협회 주관…4월 11일 시상식



오세영 시인.



한분순 시조시인.



김홍신 소설가.



장경렬 교수.

제14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 오세영 시인(시), 한분순 시조시인(시조), 김홍신 소설가(소설), 장경렬 서울대 영문과 교수(평론)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오세영의 시 '장작을 패며'(<문학의 문학> 2008 봄)외 4편, 한분순의 시조 '고뇌의 만취'(<유심> 2008 가을)외 4편, 김홍신의 장편소설 <대발해> 전 10권(아리샘, 2007), 장경렬의 평론집 <응시와 성찰>(문학과 지성사, 2008)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이 상은 1996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정한 상으로,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 시조, 소설, 평론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4월 11일(토) 오후 3시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김성우 기자

찬불 동요제·가사공모 잇따라

찬불 동요제와 가사 공모전이 잇따라 열린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4회 어린이 찬불 동요제를 개최한다.

사찰 어린이법회에 다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사찰에서 찬불가 1곡을 선정, 율동을 창작해 발표하면 된다. 신청서와 참가비(5만원), 참가곡 CD를 2월 28일까지 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02)738-7860

한편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4월 20일까지 불교가요, 불교가곡, 불교동요, 의식찬불가, 사찰홍보가 등 6개 부문에서 찬불가 가사를 공모한다. 원고는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 가능하며 당선작은 5월 10일 진흥회 카페(cafe.daum.net/kbm55997)에 발표된다. (02)425-3002

이상언 기자

덕숭총림 제3대 방장 圓潭 大宗師 1주기 추모법회



鏡虛 · 滿空의 禪胍을 이어 天眞法香으로 一世를 風味하셨던 덕숭총림 방장 圓潭大宗師께서 입적하신지 一周忌가 되었습니다.

인연따라 오고 감은 空華일 뿐이지만 남기고 가신 그 향기가 아직 생생하여 스님을 여읜 門徒의 마음은 아직 虛虛롭지 못합니다. 여러 원로 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추모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동참하셔서 法席에 향을 더하여 주십시요.

일 시 _ 2009년 3월 7일(음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_ 수덕사

문 의 _ 수덕사 종무소 041)337-6565

원담문도회 대표 설정 ·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옹산 합장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동양구운마늘환으로 활기찬 생활을!
마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여 드시기 편리한 100% 마늘환입니다
강한 살균력과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지혈증등의 성인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간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준다.
2.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3. 면역력을 키워 체질개선에 효과적이다.
주문 전화 080-323-7575 동양물산
인터넷:http://gk24.co.kr, 한글주소:건강24시

무 령 철 학 원
영산재,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저렴한 보시금으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02)743-5557
010-5550-5139 원장직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미만
전화주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퇴마 심령 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혜 원 정 사
평생원력인 청소년 침묵선원불사를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스님과 불자님의 수희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16-401-6254 (정은스님)
농협 321-02-540212 (홍석숭)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선묵화(달마도)개인지도
선묵화(달마도)개인지도
선묵화의 기본정신자세와 기법을 체계적지도
054)535-0378
선문화 예술원

빙 의 치 료
정신질환,영가장애 등 고통을 받는분 빠른 시간내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010-3142-5766

인 연
사찰이나 불자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포교사 자격, 1종운전면허소지)
60세 남 연락주세요
011-296-3612

비구니 노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1인1실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죽림선원
010-3047-0233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절입니다
선원불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스님 또는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능력대로 시주금 받고 종신재
010-9367-5982

비어있는 사찰 관리하여 드립니다
비구입니다
011-850-0176

조용한 산속암자에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이나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평생 도반 경치좋고 아늑한 암자터를 소유하고 있는
오행,뜸,벌침,역학에 능한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통나무 황토집을 지으려 합니다
조금만 협조하시고 함께 살 아가실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무료봉사,만수무강 집짓기
스님, 불자님, 토굴명당에 집을 짓기, 천기와 지기를 받아 건강을 지키는 공법입니다
설계내용은 전화로
자재비는 본인부담
011-454-83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가족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과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행 자 모 집
비어있는 사찰 비구니스님 되길 원하는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분
(의식지도함)
011-307-0117

소원성취를 들어주는 청정한 나반도량에서 수행하실 비구니스님들 모십니다
011-9790-1779
055)835-9450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40대중반)
▷경기포천
011-9269-8445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011-9782-3216

노스님 모시면서 생활하고 싶은 보살입니다 연락주십시요
010-5465-5801

사찰관리 하면서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40~50세) 직접 본인관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010-3846-20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계속 상주하시거나 출퇴근 하실분도 환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해동 성취사
051)727-0859,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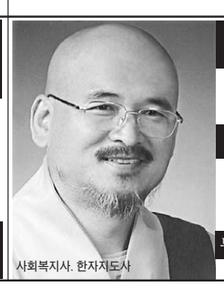
50대 비구승입니다 각종 예불 및 천도재 가능함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연락 주십시요
010-3189-3420

공양주 보살님 경리사원 구합니다
▷개원사
053)981-0995
016-400-0664

신심으로 수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조계종 노승이 쉬고싶어 지장보궁을 평생관리 운영할 건당상좌될 인연있는 비구니를 전화요망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韓,中,日 명 리 연 구 원
격국론 · 용신론 · 조후론 · 육효 · 기타
어떤 것이 줄기이고 가지인가?
어떤 것을 버리고 선택할것인가?
어떻게 시간비용을 절약할것인가?
〔 2月 28日 土요일 설명회와 토론회 마련 〕
대전광역시 042)628-2191, 010-5858-1191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2/16(월) 18:30 [개강 강사 : 이선종 선생]
● 2/19(목) 18:30 개강 [강사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국불교불광종입종환영
종단이 총무원 산하 속협회 소속업는 스님 법사 보살 철학사 입종환영
신당 법당 명산에 빌어도 조상 칠성 풍파로 가정 우환 고통받는분 상담환영
상단불공 · 산장불공 · 산신불공 · 지장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병시식법
누구라도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쉽게 배울수있는 각각 단권으로 출판된 불공책
스님 법사 보살 철학사 불자님께 필요한책 (농협 :150022-51-167171 한국불교불광종)
사무실관리 PC가능 40세이상 여. 공양주 구함 숙식가능 급여 상담후 결정
053-561-4440, 011-9422-1885 주소 : 대구시서구내당 2,3동923-142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법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면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 · 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 「효사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活人天役 전문가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매화역수/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좌정 · 휴대용) 등 15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종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09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북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60갑자 각 순별6권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A4 좌정용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 · 「완결판」으로 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서울 지역 02)833-8683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 지역 051)908-8683 담당 진민경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15평
- 요사 : 10평
- 부지 : 80평
- 전세 : 1억5천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4억5천만원 (세:1억 월150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계곡접
- 약 30억불사 ●가액:12억

지리산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 총평수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방8칸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양도가 6억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이천동
- 법당 12평
- 삼존불, 영가단, 신중단
- 마당 허공 약사여래불.
  거실, 방1, 부억
- 역학 상담, 사찰운영 하실수 있는 스님 적합
- 전세금 3천 6백만원

053)475-8292
011-535-5709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 임대 구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가액 : 평당 30만원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 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010-5501-3150

부 산 대 사 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 20년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2~3분거리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방2,주방,욕실,거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월세가능)
-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에 한함

011-9128-206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율하역 5분거리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60평
- 법당1, 방3, 주방, 욕실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509-0670

사 찰 안 내

- 위치 : 송파 하남방향 20분거리 야산 및 대도로변 유원지 입구
- 대지 133평, 건평 70평
- 2층 대웅전, 1층 요사채
- 동굴산신각, 무허가 건물(약40평)
- 마당 1000평이상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9억 8천만원

016-286-5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방 2개,주방
- 전세 1,0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0-4427-2256

명당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진동
- 평수: 5000평
- 대지: 600평,슬라브 40평
- 산중턱위치,동남향
- 주인직접매도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854-1991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부천시
- 평수 : 110평
- 법당 : 약 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3억 1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평수 : 71평(3층건물 중 2층)
- 구조 : 법당46평, 방3, 주방1, 화장실2, 욕실1
- 보증금+시설비 : 3200만원 월 62만원
- 타지역 불사 관계로 급 양도 시설 A+급. 천일기도중

011-9906-036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 법당 40평
- 요사(2층건물)
- 공양간 별도로 있음
- 가액 : 3억 6천만원

010-8853-38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공동운영할 뜻있는 스님상담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상가 4층중 4층, 아파트 대단지 밀집지역, 최고위치
- 평수 : 54평
- 거실,법당,요사채,원주실,목욕실
- 가액 : 1억 5천만원
- 주지스님 불사 관계로 급매

010-3443-2859

사찰 암자 펜션 부지 안내

천하절경 풍수지리 명당

- 위치 : 춘천시 남면 발산리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강촌IC 진입로 부근
- 지역 : 관리지역
- 지목 : 전면적: 645평
- 특징 : 마을에서 200M거리 야산밑 남서향, 서축완료, 도로포장,전기유(有)
- 가액 : 평당 50만원

011-9797-3830

전 통 사 찰 안 내

- 가액 : 40억

010-2533-8966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마당,연못 법당25평,삼존불,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요사채50평 가액:2억8천만원(융자가능) 가액 절충가능

*꼭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3996-2035

지리산 토굴안내

- 위치 : 남원시 지리산 백사골 입구
- 평수: 양옥 슬라브 건평40평 보일러실 4평, 대지 198평, 전139평(주차장사용가능)
- 가액 : 2008년 감정가로 8300만원 협의
- 특징 : 앞이 트이고 샛강이 보이고 주위는 송림, 한적한곳

010-9452-4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 대지 : 300평, 법당 20평
- 방3개, 거실, 주방, 대도로변 조경, 잔디밭 200평
-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절충가능)

011-468-99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중심지 큰 길변
- 가액 : 절충, 스님 사정상(유학) 양도

019-375-9051

수 행 도 량 안 내

- 위치 : 주왕산국립공원內
- 평수: 종교부지 340평 임야1230평
- 법당: 12평(목조) 요사채 25평 산신각 2평
- 특징: 전기 전화 없는 청정한 도량

010-7109-32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 -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요사채, 집3채
- 옆산,옆계곡,마당잔디,텃밭 각종유실수,정원수,평지
- 국도 2차선 100m밑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500만원 일년 350만원 양도가능 2억5천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대지 280평, 종교부지 150평
- 대웅전 목조 25평, 요사채 목조30평 산신각 약2평 텃밭 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8488-861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26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0-4100-94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시청옆
- 평수 : 약45평
- 보증금+시설비 3300만원 월25만원

010-3167-5225

사찰임대 및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 평수:임법당12평,임요사채55평
- 삼존불,계곡접,산세수려 주위가 산에 둘러쌓인 조용한 사찰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수행공부 하실스님 적합 역학인도 가능
- 임대전세 5000만원 매매도 가능

011-9240-13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산
- 법당 : 100평 방4 삼존불,신중,산신,인등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20만원 시설비4000만원

010-6293-17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전주시 코아백화점부근 최고의 요지
- 평수:70평,3층 옥상사용가능
- 시설특A급,전체난방,에어컨설치 고급엠프설치
- 법당,주지실,공양간,욕실,화장실2
- 불교대운영중, 몸만오셔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으로 저렴함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9656-0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대원정사 극락원
- 총대지 378평, 법당목조단청32평, 산신당 용왕당,종각, 칠층석탑,석조약사여래입불상
- 요사채 30평,반지하 100평
- 성산일출봉이 보이며 관광일 주도로변에 위치
- 급 양도가 : 3억 3천

064)702-9982
011-858-8892

천하절경 명당터

영서북부지방 강원, 포천 경계지락인 화악산 자락에 창건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당터 고찰을 뜻 있는분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강원, 포천-화악산 자락)
- 교통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춘천 30분거리
- 현 불자수 : 약 500여명 ●사찰연혁 : 300여년
- 전체면적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 전각 : 대웅전, 명부전, 무량수전, 산신각, 용왕각, 종각
- 부대시설 : 주지접견실, 요사채1, 요사채 및 공양실3, 석등6, 석탑1, 미륵석불1, 관음석불1
- 현사찰가액 : 현 시가 30억이상의 가치
- 실제매도가액 : 17억(절충가능)

017-373-5998 (주지스님 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양산 대사찰(부산근교)
- 법당 35평 5포(보일러시설,에어컨 완비) 입상불 및 3000불전 ●대지 1500평
- 종각 :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완비
- 삼성각 : 칠성불, 산왕불, 나반존자
- 요사채 : 100평, 2동, 방10칸, 전체심야전기보일러
- 공양간 별도 30평, 완전시설. 산세수려, 큰계곡
- 가액 : 15억

010-9797-5477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 5층건물중 3층 약 50평(포교당 옆 대형마트)
- 큰법당1, 방2, 주방1, 주차 최고 양호
- 보증금 4천만원 관리비포함 월 200만원
- 시설(특)A급,시설비는 최저 답사후 결정
- 동으로 조성된 불상최고 A급 3자1/2
- 불기에 필요한 대북+경상+에어컨+불기 그릇포함. (약 6천만원)일체를 무료로 드립니다
- 미국이민 관계로 급양도

011-9129-900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2동(초량시장 내)
- 3층 건물 중 3층(50평), 법당, 삼존불 거실, 방 2개(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성공하는 스피치, 성공적 강의 기법

"쉬운 말로 설법한 부처님처럼 회향해야"

강 사 : 이현정 (타니아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대표)
일 시 : 2009년 2월 6일
장 소 : 만해NGO교육센터
주 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주 제 : 호법전문가 양성과정

1989년 BBS불교방송 개국공채 1기로 입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현정 前 BBS아나운서가 '말하기' 강좌를 펼친 인연은 독특하다. 그녀는 IMF 당시 직접 각계각층 100여명의 리더들을 만나는 기획취재에서 이들의 성공원동력에는 '달변'이 있었음을 느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능력이 성공의 필수요건이라 강조하는 이현정 아나운서. 그녀는 우리시대 말하기 전법사다. 'BBS 신행상담실' 등 수많은 불교프로그램에서 많은 스님, 불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불교포교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현정 아나운서가 종무원과 현장 활동가들에게 포교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좋은 생각도 전달 없인 도로아미타불

저는 IMF 당시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하는 기획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시 100여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기획이 끝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 표현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제가 '스피치'의 중요성을 말하며 다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후 BBS 아나운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많은 곳에 '스피치'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중 반 이상이 목사님들을 비롯한 기독교계통이었습니다. 기독교계가 타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선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턱대고 선교 잘 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명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법' '성경을 감동적으로 낭독하는 법' '강당에서 깊게 울리는 발성법' 등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수강함으로써 학습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더 깊이 공부하게 된 도움을 받았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자인 저는 몇 년간 기독교계에서 강좌를 진행하다보니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교를 타종교와 비교하게 됐습니다.

'말로 다른 이를 교화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스피치'에 대한 매뉴얼 등, 설교 전반에 대한 기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반면 참선, 독경, 염불 등 내면수행을 중시하는 불교는 말이 많은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미래사회로 갈수록 종교를 불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시된다는 점입니다.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콘텐츠 표현 · 전달에 선진국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촛불집회에서 연설하나로 기립박수를 받고, 말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수많은 팬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까지도 첫 인상이 좌우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특히 표현력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을 짧은 시간 동안 설득시키는 표현력을 갖춘다면 불교 포교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가만 있어라. 중간은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지요. 반대로 최소한 자기표현만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플(Apple)사의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의 왕'으로 불립니다. 흔히 양복 입고 근엄한 대기업 CEO가 허름한 남방을 입고, iMAC, iPot 등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열광 이면에는 호환도 잘 되지 않는 노트북과 MP3에 애플사의 스토리를 입힌 스티브잡스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 있습니다. 애플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애플사 역사와 철학까지 함께 사고, 그 제품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갖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포교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불교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미 포교활동에 도움이 될 밑거름이 많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활용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서는 곳은 어디나 무대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원맨쇼'입니다. 서비스 마인드로 자신을 버리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불교가 타종교보다 포교에서 약한 부분은 유아에서 대학생 등 젊은 계층입니다.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데 반해 불교를 믿는 아이들은 쉽사리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찰 어린이법회 등에서 그들이 재미가 없다고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뜻도 모르는 아이들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재미 있어서 스스로 찾고, 어른들도 끼고 싶어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스님들도 '원맨쇼'를 해야 합니다. 불교를 모르고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불교의 '스토리'를 얘기해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는 논리보다 강합니다. 이미지는 3초 안에 가늠됩니다. 아이들이 불교를 접하고 '무섭다'고 하면 안됩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떠나는 것을 그저 '인연'으로 치부해서도 안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콘크리트 법칙이 있습니다. 불교는 '무섭다'가 '미신이다'로 방치되면 콘크리트처럼 변합니다. 불자들은 불교 안에 있으므로 타종교인이 보는 시각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아가 안을 보고 고쳐야 할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부처님처럼 눈높이 중생에 맞춰 설법해야

부처님은 평생 직접 발로 다니시며, '말'로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눈높이를 중생에 맞추고, 각 지방어로 쉽게 전하신 그 정신을 21세기에도 다시 펼쳐야 합니다. 여러 수행정진을 통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회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나 일반재가자들이 '스피치'를 잘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 프레젠테이션' '경전 강의' '사찰 소개' 등 설법의 시작은 '자기PR'을 준비하는데서 시작합니다. 효과적으로 자신을 PR하는 데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좋은 이미지를 남겨라(Smile)
2. 강렬한 인상을 주어라(Impression)
3. SSCI 전략을 쓰라(Simple, Smart, Clean Image)

여기서 'SSCI전략'이란, '간단명료하게 말하라'입니다. 주구장창 말하는 것은 자기PR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부분입니다. 긴 내용을 얼마만큼 요약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느냐에 모든 것이 판별됩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에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스토리텔링이 좋습니다. 단순히 '누구입니다'보다 '어떤 인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누구입니다'등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엮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기PR에서 자신의 미래비전을 소개 하는 것도 자신 있고 당당해 보이는 인상을 남겨 추천합니다.

자기PR에서 성공적인 설법까지는 7가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①전략 ②준비 ③자신감 ④커뮤니케이션 스킬 ⑤바디랭귀지 ⑥비주얼 ⑦리허설입니다.

설법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준비한 대본을 그냥 줄줄 읽는 것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확실한 의사전달에는 리드미컬한 억양이 필요합니다. 잠시 뜸을 들이고, 손짓 등을 이용한 바디랭귀지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그맨들과도 행사진행을 해오면서 순간 재치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 나타난 것임을 봐왔습니다.

먼저 설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동선과 대중에 맞춰서 적용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리허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습관이나, 나도 모르는 감동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미국 대통령도 연설할 때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연단에서 오른쪽 세 걸음 걸어 나와 오른쪽 팔을 든 다음 이 유머를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호감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대통령도 미리 짜진 각본 '연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스님들도 창피할 것 없습니다. 역동적인 설법을 위해서는 미리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면 좋습니다. '스피치' 커뮤니티 등 동호회 사이트에 가면 보다 잘 말하기 위한 노력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스스로 보지 못한 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불자로서는 불교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성공합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설법은 '자기PR' 준비하는데서 시작, 7원칙 지켜라"
전략·준비·자신감·대화 기술·바디랭귀지·비주얼·리허설

이현정 前 BBS 아나운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 학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동양화 석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BBS불교방송 '기상가요' '여성만세' '퀴즈대장경' '음악의 마을' '트로트 대행진' '아침을 열며' '장병의 시간' 'BBS신행상담실' 등 진행.
부처님오신날 행사, '거룩한 만남 400회 기념 공개방송' 등 진행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 등 책 발간.
현 (사)한국다문화센터 대변인이자 교육부소장.
현 타니아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대표.

불자정보 719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가액 5억(절충가능)
• 조계종 스님에 한함
016-9677-489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동
• 대지 : 130평, 건물 : 45평 (법당,산신각,방3칸,거실,주방,욕실)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임대, 양도가능
055)366-38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개산동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850만원
011-223-77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인접
• 건물 : 조립식 3동 약80평 법당 30평
• 평수 : 준농림 약 3000평
• 입지 : 천혜의 기도도량(자연환경) 뒷산면 병풍 및 앞은 야산으로 평평함
• 가액 : 5억원
010-3131-10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800평, 요사채, 방4개,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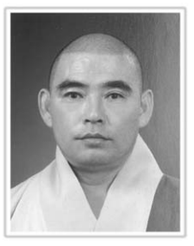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부지200평(등기165평)
• 한옥2동,법당,요사채 정원 및 주차장
• 주변 아파트 대단지 상가,학교 인근지역
• 교통 사통팔달,정남향
• 가액:융자 6천만원포함 2억1천만원
010-3693-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10-2988-02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전동 소재
• 대지 약 230평 전220평 법당 15평(삼존불) 요사채(신,구)방 7개,욕실 3개
• 심야전기보일러
•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507-0779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 서울교육 :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 부산교육 : 월, 화, 수, 목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웃음보살 불등거사 〈35〉

구성 : 김흥인



나무통에게 화낸 어리석은 사람 〈백유경(百喩經)〉



길을 가다 목마른 한 나그네가 나무통에 흐르는 맑은 물을 보고 실컷 마신 후 나무통을 보고 말했다. "나는 실컷 마셨으니 물아, 다시 나오지 말라." 그러나 물이 계속 흐르자 그는 화를 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는 "너는 참으로 어리석어 지혜가 없구나. 왜 네가 떠나지 않고 물을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며 그를 다른 곳으로 끌어다 놨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생사의 애욕 때문에 다섯 가지 쾌락의 짠물을 마시다가 쾌락에 염증이 생기면 저 물을 실컷 마신 사람처럼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한다. "왜 구태여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써만이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 하는가. 네가 그것을 떠나려고 하거든 너의 여섯 가지 정(情)을 거두고, 마음을 닦아 망상을 내지 않으면 해탈을 얻을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승찬 스님이 법을 구하다
승찬구법(僧璨求法)



고려대장경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승찬구법(僧璨求法)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 선종의 3대조사 승찬 스님이 혜가 스님에게 불법을 구하는 장면이다. 승찬(僧璨) 스님은 허베이성(河北省)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출신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뭉둥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전해지는데, 병이 나은 뒤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아 적두찬(赤頭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고에 시달리던 승찬은 북제(北齊, 550~577) 말기에 중국 선종(禪宗)의 제2대 조사(祖師)인 혜가(慧可, 487~593)를 찾아가 불법을 구했다. 혜가와의 문답에서 깨달음을 얻은 승찬은 출가해 승려가 됐고, 보배처럼 빛난다는 뜻에서 '찬(璨)'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몇 년 뒤 혜가로부터 의발(衣鉢)을 전해 받아 선종의 제3대 조사가 됐다. 도신(道信, 580~651)에게 의발을 전한 뒤에 600년(開皇 20년) 무렵부터는 광둥성(廣東省)의 나부산(羅浮山)에 은거했다. 그 뒤 다시 환공산(皖公山)의 산곡사(山谷寺)로 돌아와 불법(佛法)을 전하다가, 수(隋) 양제(煬帝, 재위 604~618) 때인 606년(大業 2년 10월 5일)에 나무 아래에서 합장한 채 서서 입적(入寂)했다고 전해진다. 772년(大曆 7년)에 승찬(僧璨)은 당(唐)의 대종(代宗)에게 감지선사(鑑智禪師)라는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산곡사(山谷寺)에는 그를 기리는 각적탑(覺寂塔)이 세워졌다. 승찬 스님은 146구(句) 584자(字)로 된 〈신심명(信心銘)〉을 지었는데, 사언절구(四言絶句)의 시문(詩文)으로 73개의 대구(對句)로 구성된 이 글은 선(禪)의 요체(要諦)가 잘 나타나 있어서 중국에 불법이 전래된 이후 나타난 '최고의 문자(文字)'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심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 단막증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지극한 도(道)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오직 간택(揀擇)하지 않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지극한 도는 툭 트여 명백하다. 불법을 바로 알려면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이상의 네 구절이 바로 〈신심명〉의 골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봄

가랑비 몇 줄기 지나갔을 뿐인데
밑동도 채 적시지 못하고 스쳐갔을 뿐인데
나무는 가지 끝이 잔뜩 부풀었다.
그 탱탱함 어쩌지 못하고 진저리를 치고 있다.
허망타, 한 철 수행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도 한 차례의 수런거림이 누이에 자욱이 번져가것다.

–윤효/시집 〈햇살방석〉에서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에 최면 시술사 완성, 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을 받으려면 유마로 가라" 할 만큼 유마 최면 연구소의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 20회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空을 넘나 드십시오!





대행 스님

모든 걸 주인공에 놓으면 얽히고설킨 인연줄 다 소멸돼

되는 쪽으로만 붙잡게 됩니다

문 저는 아직 마음공부 초보자입니다. 큰스님 가르침 받들어 생활 속의 참선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그 자리, 안 되는 것도 그 자리라 그러는데 그래도 왠지 양면이 다 놔지지 않고 되는 쪽으로만 붙잡고 있게 됩니다. 마음자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지 않아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양면을 다 놓을 수 있겠는지요?

답 배울 때는요, 안되는 일도 되는 일도 이거를 다 몽땅 내버려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되는 일도 실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안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구, 이 안되는 것도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임시켰을 때 이거는 '아하, 요거 벌써 내가 이러는 줄 아는구나!' 이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영락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본래 인간이 쓸 수 있는 작용이 바로 그렇게 무한하게 있는데도 자기가 쓸 줄 모를 뿐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거사님이 아주 가난해서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거긴 차가 없으면 꼼짝 못한대요. 그런데 차를 산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인제는 버리게 생겼는데도 차 살 돈이 없어서 애를 쓰다가 '야!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더라.' 하고선 무조건 맡기고 살았더랍니다. 나는 차를 중고차라도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형수가 와서, 차를 다시 구해야 하니 자기가 차를 구하면 그 차를 가지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이러한 이러한 차를 사고 싶다고요.

그런데 형수가 사려는 차가 또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런 차가 나오게끔도 당신밖에는 못한다고 마음속으로 그랬답니다. '그것도 당신이 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이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하는 내가 당신의 종이지, 내가 나냐!' 이러면서 거기다 맡겼더랍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사흘 되니까 적당한 차를 딱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차를 주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싱긋이 웃으면서 '야! 이런 법도 있구나. 자성신이, 내 자신이 정말 으뜸이로구나!' 그러고는 그 체험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살림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그렇게 다 맡기고 그렇게 사니까 살림이 윤택해졌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 사람사람이 책만 봐서 글자로, 이론으로 아는 거는 버려라 이랬습니다. '모든 걸 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일임시켜 버려라. 그것도 바로 주인이 아는 거고 그 책 읽는 것도 주인이 읽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가진 게 아니다. 이게 주인 거다 한다면, 그 주인이 전체 대공의 진리, 평등진리로서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인공에, 큰 주인공에 그냥 이게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이 몸체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전부 공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무장(武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두를 닦을 때도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을 나는 전부 먹겠다. 나는 전부 먹을 수 있다. 콩알갱이만한 게, 구두닦이를 하면서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구두를 닦을 때 보면 자기가 눈이 새파래진다는 얘기죠. 그게 구두 닦는 게 아니죠. 손을 훅훅 불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구두를 잘못 닦으면 발길로다가 그냥 치여서 저기 나가떨어진답니다. 그럼 다시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 다시 닦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게. 그만큼 신념이 굳어야 되겠죠.

자기가 자기 능력을 무시하면 자기 몸뚱이가 무시를 당합니다. 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자기 몸뚱이가 성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자성불이라는 거는 무한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릴 때는 내 손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주인공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한번 생각을 내 보고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모두가 영락없이 돌아갑니다. 이건 우연, 팔자, 무슨 운명 따위, 삼재팔난 무슨 이런 거, 아주 그냥 몰싹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묘하고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무한의 능력을 지닌 그 주인공 자리를 확실히 믿고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다 일임시켜 버리세요. 그러고 편안하게 사세요.

왜 암에 걸리게 된 건지…

문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벌어먹고 살려니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남편은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멀쩡했는데 3개월 전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미 수술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저의 남편이 왜 자기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자니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스님,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건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림 · 최주현

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의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나 해서 일으키면 그 의식이 천도 되고 만도 됩니다. 그 의식 하나가 원자에서 입자가 많아지듯, 입자가 화해서 분자가 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생각 나쁘게 생각을 하면 나쁜 분자들이 그냥 번성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해서 놓으면 좋게 그냥 그 분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원자로부터, 입자로부터 화해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분자가 돼 가지고 나가서 세균 같은 거 뭐, 유전 같은 거, 영계성 같은 거 이런 거를 모두 끌고 들어 온다 이겁니다. 끌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다가도 차에 사고가 나거나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일을 하러 갔는데 파산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자기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인연들의 그 의식이 자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안되게 방해를 놓는 거죠. 자기의 인과에 의해서 의식이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는가 하면 이 털구멍을 통해서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나고 들고, 선으로 생각하면 선으로 나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라.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고, 내가 그런 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인제 한마음 한 뜻으로서 내가 내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귀중하구나!' 그걸 알면 귀인이 자꾸 들어와서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공의 그 능력이라는 건 능력의 빛입니다, 빛. 속의 세균이라는 것은 골수의 세균이나 혈맥의 세균이나 이 간의 세균이나 위 뭐, 직장 무슨 콩팥 이런 데 세균이, 백혈도 그렇고, 벌써 여기 발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의 능력의 빛이 아주 그냥 정열적으로 그걸 마련해 줍니다.

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채소를 갖다가 길러서 볕에다가 딱 내놔 보세요. 금방 시들어집니다. 죽습니다. 세균도 볕에다가 딱 내놔 보세요.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그렇듯이 그 마음의 능력의 빛이 거기까지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각혈을 하고 그러던 것도 피가 모두 멈춰지고 아주 그냥 순행이 되죠.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과학을 연구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거를.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시킨 거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못된 거를 고쳐야죠. 그러니 이것을 그냥 사량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 주인공과 거머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하면 벌써 일체 유심, 그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쳐진 거니까요. 역대 자기 조상까지도, 자기 마음까지도 스승의 마음까지도, 하다못해 개미의 생명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대로 놓는다면 무슨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그 근본 주인공에서 오직 이끌어갈 뿐이니 나는 네게 모든 걸 맡길 뿐이다.' 하는 마음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는 믿음이라야 겁나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런 마음이어야 주인공의 그 능력의 빛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인연이란 게…

문 얼마 전 청부살인을 해 주는 사이트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한 고객이 자신의 아버지

☞26면으로 계속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본원 불교 의식(범음범패)대학 수강생 모집

[본, 본원불교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개 강 일 : 2009년 3월 4일 오후 6시
2. 출 강 : 매주 수요일 · 목요일 오후 6시 ~ 8시
3. 교육내용 : 송주, 도량석,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등 모든 재의식, 바라춤, 나비춤(도량게, 다게작법)
4. 교육기간 : 속성단기 3개월, 장기 6개월
5. 원서접수 : 2009년 3월 3일까지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여권용 4매)
7. 자격요건 : 승려가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또는 사찰(포교원)을 개설하고자하는 자

◆ 특 권 :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하여 승려증을 발급함. 사찰(포교원)을 창건시 등록과 함께 초심자라도 여법히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재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애(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의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빚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천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 진 암 선 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풍물(사물)강좌 회원모집

풍물은 우리네 조상들이 쇠, 징, 장고, 북등의 악기를 중심으로 춤, 노래, 재담, 사설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연희현태의 대동놀이입니다. 또한 풍물은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로 어우러져 신명나는 풍물판이 형성되는 전통놀이문화입니다.
이번 개설되는 강좌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우리의 전통을 불교놀이문화로 승화시켜 새로운 불교전통문화로 이어갑니다.



개 강 : 3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동산불교회관
강 사 : 신유진 풍물예술단장
대 상 :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분
내 용 : •장구(자진모리(3채) 3개월) : 오전 10시30분
(풍 물 본 과 정 1년) : 오전 10시30분
•북 (난타북 기본 3개월) : 오후 2시
(난타북 본과정 1년) : 오후 2시
전화 : ☎ 02)732-1206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buddhanews.com

나오는 대로 근본에 맡긴다면 병 불을 자리 있겠는가!

☞25면에서 계속

를 살해해 달라고 돈을 줘서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아들이 준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 살인도 피하고 자식도 죄를 짓지 않게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스님,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무서운 인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답 이런 게 있지요. 부모자식지간에 부모를 두고 일찍 떠나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인연에 따라서 과거에 살다가 그 좀 애원한 복수를 할 양으로 그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일찍 가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부부가 사는데 애를 못 낳아서 참 애를 쓰다가 형제를 낳았어요. 형제를 낳았으니 그 형제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글방을 다니리만큼 컸는데 아, 어느 스님이 문전엘 지나가시면서 시주 좀 하라고 하니까, 아이구! 우리 아들 둘 있는 것 좀 잘 자라게, 잘 되게 해 달라고 한 바가지 푹 퍼 가지고 가서 바랑에다가 넣으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 아들 두 형제는 당신 아들이 아니오.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거미요. 당신이 생전에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그 깻벌레하고 거미를 항상 통에다가 오줌을 담아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태어난 거요." 하더랍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거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해 보라는 대로 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학교에 보내 놓고, 병아리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촘촘하게 쵤사로다가 엮어서 이렇게 만든 거요, 그거를 둥그렇게 해 놓고 가마떼기를 둘러치고 그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겻불을 피워서 양쪽으로 해 놓고 그러고서는 애들이 올 때쯤 돼서 큰 오지통 독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독 뚜껑을 자기가 덮어 주고 그러고 영감 할머니를 독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독 속에 들어가서는 "엄마 아빠, 배고파!" 이러면서 글방에서 오걸랑 아무 소리 말아라. 아무 소리 말고 그저 어떡하나 잘들어 보면 알 것이다. 소리가 안 나고, 지금으로 치면 한 시간 후에나 나와 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럭하고 있으니까 아, 두 형제가 들어오더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고 "밥 줘!" 하고선 아, 그냥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야단법석이거든요. 그 항아리 속에서 참느라고, 아니, 배가 고프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뭐 애절통절하고 있는데 아,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연놈들 어디 갔어? 응,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원수를 못 갚는데." 이거는 어떠한 문제로 이 시간을 알아서 이렇게 피했느냐 이거지. 그냥 삼지사방 쫓아다니며 찾으면서 "이 연놈들 원수 갚으려고 왔는데, 그래 가지고 이 연놈들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원수를 못 갚는다." 그러면서 펄펄 뛰고 그냥 뭐 야단법석이거든요. 이 부모는 소름이 쭉쭉 끼쳐서 가만히 죽은 듯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는 시간도 지나고 원수도 갚을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래 두어 시간 지난 뒤에 나왔겠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그래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거미들이 그냥 철망에 엉기엉기 붙어서 모두가 죽어 있고, 한쪽에는 우물우물하고 깻벌레가 그 안에서 그러고들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시간에 그걸 모면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깻벌레의 무명과 그 거미의 무명을 벗겨 줘서 다른 데로 천가를 시켜 주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도 그 부모가 가슴을 아파해야 고소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슴을 아파하지 않으면 그냥 뚝 떨어져서 에이그, 그냥 싱겁죠. 복수를 해야 할 텐데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면 싱거워서 얼른 자기 갈 곳으로 가 버리죠. 그런데 이거는 아파하고 온통 야단을 하면 아주 깔깔대고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업보를 벗어나고 인과응보를 벗어나고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벗어나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게 부모의 인연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잖습니까. 전자 과거도 있지만 현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나서 모든 걸 거기다 놓으면 과거도 현실도 다, 그 얽히고설킨 인연줄이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지금 현실에 소멸되고 현실에 알았기 때문에 미래는 저절로 그냥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이죠.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주인공 공부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인연도 다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 오로지 주인공만 붙들고 늘어지세요. 아셨지요?

더 이상 살생하고 싶지 않아요

문 스님, 저의 집에 쥐라는 녀석이 자꾸 귀찮게 굴어서 약을 놨더니 그걸 먹고 쥐가 죽었습니다. 근데 불법을 공부한다면서 살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쥐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답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다가 지렁이를 밟아 죽였다 한다면 지렁이 무명만 쳤을 뿐이지 그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놓는다면 말입니다. 지렁이가 바로 자기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였으니까 이거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둘로 보고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렁이가 또 지렁이가 되게 만들어 놓는 셈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지혜 있으면 그 지렁이도, 지렁이의 마음도 넉넉하고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잘될 것을, 내가 구차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지렁이조차도 구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걸리지 마세요, 그것도. 그러면 그 쥐라는 무명을 못 벗어요. 아시겠어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하여튼. 왜 저, 발이 많은 그리마 있죠? 그게 하나라도 걸리고 갑니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다가도 "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는구나." 한다면 그만 못 가고 맙니다, 못 가! 그게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정히 날뛰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양단간에 이게 좋은 일이냐 하면요, 개도 잘 기르는 것만 안다면 무명을 벗지 못해 가지고 그냥 차 오는 데로 막 뛰어듭니다. 자기가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되면 그 모습을 벗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어쩌다가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와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어떡하느냐? 그 좀, 사람 귀찮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 하고 누누이 말해 보세요. 그러면 쥐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라는 것은 어느 지렁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하치 못한 생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모습도 둘이 아닌 내 모습으로 보고 그 자리에 몽땅 다 놔 버리세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문 어젯밤에 갑자기 전기가 고장 나서 불이 나가는 바람에 고생을 좀 하다 보니 새삼 불의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공기, 물, 바람 등 모든 존재들에 대해 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음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를 살게 하는 그 모두가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데 너무나 가까워서 늘 잊고 살아가게 되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제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이 바람의 공기가 없다면 참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고 물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항상 감사한 줄 알고, 이게 바로 자연적인 인연입니다. 내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화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마음 한뜻, 바로 한 모습입니다. 한 형상이라 이겁니다.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과 마음이라는 그 자체,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도, 크고 작을 뿐이지 어찌 다르겠습니까? 짐승들의 생활이나 사람들의 생활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고 생활 자체의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 사는 거는 아마 매일반일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따라서 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연어도 있듯이 말입니다.

독사라는 그런 짐승도, 독사도 가짓수가 여러 가집니다마는, 새끼를 그냥 낳는 것이 있고 알로 낳는 게 있는데, 그냥 낳는 것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자랄 동안 그 어미를 잡아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어미는 그 몸을 헌신 버리듯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독사는 새끼를 낳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낳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무 아래로 뚝뚝 떨어지죠.

이 모두가, 사람 사는 거나 짐승이 사는 거나 벌레가 사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 종류도 여러 가진데, 알을 낳아서 죄 벽에다 매달아 놓는 개미도 있습니다,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 알이 차일까 봐. 이렇게 자식을 위하는 거는 아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느 벌레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러서 효도하는 걸 보고 이익을 보려고 기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식 잘되는 게 한껏 소원입니다. 아주 조건이 없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것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어버이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쇳송을 할 때도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있습니다. '원차종성 변법계' 모든 이 죽은 세상의 중생들이나 산 세상의 중생들이나 다 이 종소릴 듣고 깨어나서 이 모든 우주 섭류의 돌아가는 이치를 깨쳐서 알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라 이런 소립니다.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란 걸 뚝 떼어서 얘깁니다.

은혜를 알아라! 이 국왕의 은혜를 알고 낳아 준 부모들의 은혜를 알고, 지수화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라. 세상만사의 모든 물질의 감사함을 알아라! 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막 쓰고 이러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모르고 불을 막 쓰고 그러면서도 불의 감사함을 모르고 바람의 감사함을 몰라서, 공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도 감사함을 몰라요. 이러니 그 모든 것의 은혜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자기 주인공에다가, 항상 그 주인공이 전부 하는 거니깐 거기에다 일임시키고 거길 진짜로 믿어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 마음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는 믿음이라야
> 겁나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 주인공의 능력의 빛도 드러나게 됩니다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자 세상보기

곽 대 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력범죄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 서남부지역에서 7명의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와 효과적인 과학수사 때문에 결국 검거됐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많은 여성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60% 가량이 밤중에 혼자 걷기를 무서워할 만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 형사사법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번의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의 일등공신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과 유전자감식기술이다. 즉, 이러한 두 가지의 과학수사기법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의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범용 CCTV는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특정지역의 상황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제공해 범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범죄자로 해금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의 두려움을 증가시켜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범행을 억제시키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유전자감식기법은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후에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 재해사건의 희생자 신원파악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분석수준은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의 해결과 괌 여객기추락사건에서의 신원확인 작업수행 등에서 보듯이 세계적이다. 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강호순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범행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범인이 연쇄살인 행각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결정적인 증거는 자신의 점퍼에 묻어 있던 극소량의 핏자국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발견한 피해여성의 유전자였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작업으로 핏자국의 주인이 지난해 11월에 실종된 주부 김 모씨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유전자감식기법을 통한 범죄수사는 발생한 사건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는 데만 활용되고 근거법률의 부재로 인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전과자의 유전자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유전자분석기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CCTV와 유전자정보은행은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더 큰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예방과 빠른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기초 인프라가 될 수 있는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유전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조속히 실현해야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신도증 변신의 '딜레마'

조계종의 신도증이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 그간 신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기능뿐이었던 것이 이제 생활 구석구석에서 요모조모 필요한 알뜰살림의 도반이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올 4월부터 신도증의 기능을 대폭 변신시킨다는 소식이다. 그간 당해 사찰신도들에게만 무료입장 혜택을 주었던 문화재관람료 사찰 출입에 신도증이 있는 모든 불자에게 무료입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포교원이 기획하고 있는 이 같은 생활 속의 혜택은 무려 108가지나 될 것이라고 한다. 조계종 신도증이 신분증의 기능을 넘어 생활필수품이 되는 것이다. 1996년부터 신도등록 사업을 펼쳐 온 포교원은 그간 40여 만 명의 등록을 받았다. 당초 목표의 20%선이다. 그래서 '불자는 많은데 신도는 적다'는 허탈한 자조를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런데 포교원은 그간 미납된 신도교무금의 경우 완납을 전제로 혜택 많은 신도증을 발급할 방침인 것 같다. 40만여 명의 기 등록자 가운데 교무금 미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새로운 신도증을 위해 미납금을 완납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 경향은 아직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그간 등록한 신도들마저 이탈할 수도 있고 획기적인 신도등록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무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무제는 심각한 딜레마다. 조계종 신도증의 변신이 불자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이 되고 사찰이나 종단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도관리의 전형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대승적 합의 · 용단 필요한 '서불대'

근래에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기존의 교육 체계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특수 분야의 연구를 선택해 대학원대학들은 나름대로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불교계에는 동방대학원대학교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요즘 이 두 학교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방대학원대학의 경우 올해 5명의 박사를 배출한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서화예술 분야와 미래예측, 명상치료, 옻칠조형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박사를 배출한다. 반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그 명칭에 포함된 '불교'가 무색하리만치 긴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 행사와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갈등의 큰 양상이다. 지난해 무더기 제적 사태 등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학교 입장에서 올해는 일신된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이미지 관리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새 학기를 앞두고 연일 성명서가 나오는 등 강경한 대립양상은 그침이 없다.

학교의 위상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재단의 경영마인드가 탄탄해야 한다. 재단의 결정이 교수와 학생 교직원의 반발을 산다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학교의 존립 동력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학내의 문제가 성명전으로 치닫고 있는 한 발전 모드는 가동되지 못한다. 지금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는 대승적 합의와 용단이 모두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으로

2월의 테마-예경공양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따뜻해져 가고 있다. 연구실 앞 호수에는 얼었던 물이 녹고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백로들도 나무위에 많이 날아와 앉아 있다. 작년 봄에 호수 한 가운데 섬에 백로가 몇 마리가 날아와서 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서울 한복판 교정에 백로가 날아오는 것이 궁금해 전공 교수님께 물으니 한강이 물이 깊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물을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이 섬 주변에 새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나무 말뚝을 박아 주면 많은 새가 날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학교 본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직원들이 나무 말뚝을 박고 있었고, 그 뒤에 백로가 날라오는 것이 늘어 지난해에는 30여 마리까지 늘었다. 백로가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면서 교정은 학문의 열정과 멋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됐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보면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 중에서 첫째가 예경공양이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보현보살이 예경공양하는 것은 사람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성을 가진 존재를 다 공경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현보살의 예경공양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불자는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부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불자는 사람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고,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불교의 교리는 이렇게 간단하다.

우리가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과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부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실한 예경공양이 될 것이다. 부처가 되기 전에는 중생이다. 중생은 살아 가면서 어려움이 많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

호수에 말뚝 몇 개를 박자, 서울 한복판에 백로가 날라와 단숨에 교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불자로서 다른 생명체를 바르게 예경공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지혜를 갖춰 진정으로 부처님을 예경공양하도록 하자.

정기웅
건국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 2. 사물 다루는법 | 3. 천수바라 | 4. 사다라니바라 | 5. 오공양작법 | 6. 요잡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 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 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1933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1937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1945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49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53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61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삼
1965년생 뱀띠	재입니다.

천연백수정108 염주

화제의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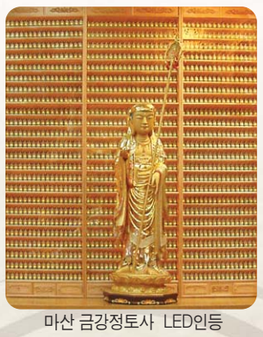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